http://doi.org/10.17938/tjkdat.2025..85.11
© 2025. 백현미 All Rights Reserved.

해방기 창작 창극과 국민/여성

백현미*

〈차례〉

1. 들어가는 글
2. 미군정기 창극, '조선고전음악'과 '국극'의 양립
  2.1. 조선고전음악연구회와 〈건설하는 사람들〉
  2.2. 국극사와 〈청산도 절로 사람도 절로〉
3. 정부수립기 창극 1, '민족오페라'로의 호명
  3.1. 국극사와 〈선화공주〉
  3.2. 국극협단과 〈고구려의 혼〉
  3.3. 조선창극단과 〈의기 논개〉 그리고 김연수창극단
4. 정부수립기 창극 2, 여성국극(단)의 발흥
  4.1. 여성국악동호회와 〈햇님과 달님〉
  4.2. 여성국극동지사와 〈황금돼지〉
5. 동원 문화의 재연과 변주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표는 해방기에 활동한 창극단들의 향방을 추적하고 창작 창극의 경향성을 해석하며, 창극에서 '국민과 여성'이 재현되고 동원되는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

미군정기에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와 국극사가 새로 조직되어, 당대 현실을 배경으로 한 창작 창극을 공연했다. 광주 지역에서 결성된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건설하는 사람들〉(1945)을 여러 지방에서 공연했고, 북한 지역에 유사한 이름의 단체가 조직된 즈음 사라졌다. 서울에서 결성된 국극사는 농민의 갈등을 경희극풍으로 다룬 〈청산도 절로 사람도 절로〉(1946)를 공연하며 일제 말기에 인기를 끈 박귀희의 여창남역 표현술을 재활용했다.

창극이 민족오페라로 불린 정부수립기에는 (역사)설화 소재작들이 공연되었는데, 항일을 행하는 여성을 앞세운 경우와 일제 말기의 화제작을 재공연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국극사의 〈선화공주〉(1948)는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고, 조선창극단의 〈의기 논개〉(1948)와 김연수창극단의 〈임진왜란과 계월향〉(1949)은 전쟁터에서 '충의'을 행하는 여성의 자세를 강조했다. 일제 말기에 인기를 끈 망국사 소재작이나 중국 관련 작들이 공연되기도 했다. 국극협단은 〈일

www.kci.go.kr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장군〉(1944)을 개명한 〈고구려의 혼〉(1948)을, 국극사는 '맹강녀 설화'를 소재로 한 〈만리장성〉(1950)을 공연했다.

정부수립기 후기에는 여성국극(단)이 국가를 구하는 남성상을 재현한 (역사)설화 소재작을 발표했는데, 번안각색작과 고대사 소재작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국악동호회의 〈햇님과 달님〉(1949)은 번안각색작으로, 수수께끼를 푸는 지혜로 사랑을 쟁취하는 남성상을 그렸다. 여성국극동지사의 〈황금돼지〉(1949)는 고대사를 소재로 삼았고 '조선의 왕자' 햇님이 황금돼지로 표상된 외세를 물리치고 '한(韓)의 월지국'을 구하는 내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상을 내세웠다. 여성국극은 여성 공연자가 나라를 구하는 남성상을 재현하는 공연물로서 군대의 후원을 받기도 했다. 여성국극은,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 사이 시기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국민/여성 역할을 상상케 하는 민족오페라가 되었다.

주제어: 〈건설하는 사람들〉, 〈고구려의 혼〉, 국극사, 국극협단, 김연수창극단, 서항석, 〈선화공주〉, 여성국극, 여성국극동지사, 여성국악동호회, 〈의기 논개〉, 〈임진왜란과 계월향〉, 조선고전음악연구회, 조선창극단, 〈청산도 절로 사람도 절로〉, 〈햇님과 달님〉, 〈황금돼지〉

www.kci.go.kr

1. 들어가는 글

해방기에 창극은 국극 또는 민족오페라로 불렸다. 이 호명의 방식에서 보이듯, 해방기에 창극은 식민지 시대의 동원 문화에서 식민지 시대 이후의 국가주의적 동원 문화로 재설정되었다. 해방기에는 북쪽 지역에도 창극의 거점이 생겨났고, 일제 말기에 활동했던 창극단들이 재개했고, 여성국극(단)이 발흥해 위세를 떨쳤다. 이 이동과 지속과 신출에서 보이듯, 해방기에 창극은 일제 잔재 청산 요구와 남북한의 대치가 확대되는 파장 속에 존재했고, 국가와 민족, 여성에 대한 담론이 현시되는 장으로 부상했다.

해방기 창극의 이런 문제성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공연 연보는 대략 파악되었지만,[1] 해방기 창극계의 변화를 식민지 시기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방기 여성국극(단)의 발흥 상황과 서사적 장르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에서도,[2] 해방기 창극계의 전반적 맥락은 미처 짚어지지 못했다.

해방기 창극계의 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관련된 증언도 기록도 소략한 터에 있는 정보마저 '미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무하가 이 시기 공연된 〈춘향전〉의 각색자로 나오는데, 공연계에서는 생소한 이름이다. 여타 작품에서 작가로 거명된 고훈이나 탄금태인 등도 정체를 드러내는 이름은 아니다. 〈고구려의 혼〉처럼 일제강점기에 공연되었된 작품이 제목이 바뀐 채 공연된 경우도 있고, 민중창극단처

1) 김민수, 「1940년대 판소리와 창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50-174면.

2) 문경연은 「초기 여성국극의 장르정착과 서사적 특성 연구-〈황금돼지〉를 중심으로」(『한국연극학』 51, 2013)에서 여성국극의 출현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1963년에 영화화된 〈햇님왕자와 달님공주〉 시나리오와 1950년대 초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황금돼지〉 대본을 소개하고 분석했다.
이화진은 「여성국극의 '오리엔탈 로맨스'와 (비)역사적 상상력」(『한국극예술연구』 43, 2014)에서 초기 여성국극의 장르적 특이성과 오리엔탈리즘의 발현 양상을 밝혔다.

럼 단체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웬일인지, 국극사의 첫 창작 창극인 〈청산도 절로 사람도 절로〉(1946.10)의 대본은, 서항석 사후에 출판된 『경안서항석전집(1) 희곡』에 '제목 미상'인 채로 실렸다. 일제 잔재 청산 논란과 좌우파 대립이 뒤섞인 해방기 정치문화 지형을 고려하며 이 미상의 정보를 해석하고 파악할 때, 해방기 창극계의 문제적 국면이 드러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해방기 창극계의 구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전통예술계 대표 조직이었던 국악원의 정체성 변화와 창극 활동 상황을[3] 참조할 것이다. 국악원의 조직 변화는 미군정기에서 정부수립기로 이행하던 시기의 정치 문화적 궤적을 잘 보여준다. 국악원은 해방 직후 좌파가 기민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함화진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정부 수립 후 좌파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박헌봉으로 원장이 교체되었다. 정부수립기 전후로 격렬하게 진행된 좌우파 구별짓기가 현출되었던 것이다. 둘째, 국악원의 활동을 통해 이 시기 창극의 방향성이 드러나곤 했다. 국악원은 미군정기에 '가극'이라는 용어를 앞세우며 창립 공연을 한 후 '국극'이라는 명칭을 앞세운 행사를 연례화했고, 정부수립기에 해당하는 1948년 초부터는 창극을 '민족오페라'라고 홍보했다. 셋째, 국악원 '산하' 단체 여부로 창극단의 윤곽이 가늠될 수 있다. 창극단이 국악원과 맺는 관련성은 제각기 달랐다.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국악원 산하 단체는 아니지만, 국악원 창립 공연에 참가했다. 국악원 산하에는 '국극'을 단체명에 앞세운 국극사와 국극협단이, '여성'을 독립변수로 내세운 여성국악동호회와 여성국극동지사가 시차를 두고 생겨났다. 그리고 국악원 산하로 들어가지 않은 채 단체 이름에 ('국극'이나 '국악' 대신) '창극'을 고수한 단체도 있었다. 조선창극단이나 김연수창극단 등이 그렇다.

3) 백현미, 「해방기 국악원의 정치적·문화적 지향성 변화」, 『판소리연구』 53, 판소리학회, 2022.

www.kci.go.kr

해방기 창극계의 구도를 드러내기 위해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로 장을 나누고, 각 시기에 활동한 창극단과 그 창극단들의 창작 창극을 절 제목으로 달아 창극단과 창작 창극의 윤곽이 드러나도록 했다. 정부수립기 창극이 두 장(3장, 4장)으로 나뉜 셈인데, 이는 단체의 설립 시차와 중요도를 고려한 것이다. 절마다 창극단의 주요 활동과 창작 창극의 면모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했는데, 논의 구조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확보한 자료에 편차가 있기도 하고, 각 단체의 활동 이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 미군정기 창극, '조선고전음악'과 '국극'의 양립

미군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5년 9월 초, "조선성악건설준비회의 김연수 박록주 외 19명은 건국준비위원회 원호회 사업에 협력하기 위하여……연주회를"[4] 열었다. 이 조선성악건설준비회는, 조선음악건설본부 산하의 국악사본부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국악사본부(곧 국악원으로 바뀐)가[5] 조선악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성격이 강했던 반면, 조선성악건설준비회는 조선창극단 소속 창극인들이 주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말기 활동했던 조선창극단과 동일창극단은 해방 직후 두어 차례 서울에서 공연한 후 서울을 떠나 대구로 내려갔다. 조선창극단은 1945년 9월 〈춘향전〉과 〈장화홍련전〉을 (서울)제일극장에서,[6] 그리고 11월에는 '해방기념 공연'을 내세우며 (서울)제일극장에서 공연했고,[7] 1946년 1월

4) 「원호 연주회」, 『매일신보』, 1945.9.7.

5)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조선음악건설본부(1945.8.16.) 산하의 국악위원회가 국악사본부(1945.8.18)로 되었다가,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에 국악회(1945.9.29.)로, 국악원(1945.11.1.)으로 재차 이름이 바뀌었다. 백현미, 앞의 논문, 165-167면.

6) 『매일신보』, 1945.9.28.(광고); 『매일신보』, 1945.9.30.(광고)

7) '조선창극단 해방기념 제1회 공연' 춘향전 출연진: 김연수, 정남희, 오태석, 백점봉, 강장원, 박영진, 정원섭, 방태진, 조한중, 김원길, 박동준, 김광렬, 박록주, 원옥화, 성미향, 박롱주, 한산월, 박초향, 고옥순, 이미숙, 김금련, 조유색. 『중앙신문』,

에는 대구극장에서 공연했다.[8] 한편 동일창극단은 1945년 10월에 (서울)제일극장에서 공연했고[9] 11월에는 민중창극단으로 개명하고 대구극장에서 공연했다.[10]

조선창극단은 곧 분화되었다. 조선창극단에서 활동했던 남녀 창자들 상당수는 국극사의 창립 공연(1946.4)이 실시될 무렵 국극사로 소속을 옮겼다. 단원 상당수가 떠난 이후에도 조선창극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한편 조선창극단을 이끌었던 김연수는, 국극사에 합류하지도 조선창극단에 머물지도 않은 채 있다가,[11] 1946년 5월 즈음부터 독립 단체를 이끌며 활동을 재개했다.[12] 1947년 2월 김연수창극단이 창립대공연을 내세우며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을 대구극장에서 공연했고,[13] 3월에는 조선창극단과 합동으로 부산에서 공연했다.[14] 조선창극단이건 김연수창극단이건, 주요 활동 지역은 대구와 부산이었다. 이들 이외에도 대구에서 활동한 창극단이 있었다. 1946년 12

1945.11.23.(광고)

8) 『대구시보』, 1946.1.25.(광고)

9) 『매일신보』, 1945.10.28.(광고)

10) 민중창극단은 동일창극단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춘향전〉을 대구극장에서 공연한다는 민중창극단 광고(『영남일보』, 1945.11.29.)에 '전 동일창극단'이라고 밝혀져 있다. 민중창극단의 대표는 김용승이었다. 「새출발한 연극단체(5)」, 『중앙신문』, 1945.11.10. 해방 직후 개명한 이 민중창극단이라는 명칭은 곧 폐기되고, 동일창극단 이름이 다시 사용되었다. 1947년 6월 동일창극단이 대구극장에서 공연했고(『부녀일보』, 1947.6.27.(광고)), 박옥진과 조금앵이 1949년에 동일창극단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다. 「출연자 푸로필」, 『동아일보』, 1955.8.19.

11) 1945년 12월 '부산예기조합 전속 동성창극단'의 창립 공연이 부산예기조합 주최, 민주중보사와 경성성악연구회 창극부 일동 후원으로 열린다는 광고(『민주중보』, 1945.12.7.)가 실렸는데, 이 광고에서 김연수가 창극의 작곡자라고 특기되었다. 이 무렵 김연수는 '경성성악연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부산에서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12) 1946년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조선창극단 김연수일행'이 광주에서 공연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있고(「조선창극단 來光」, 『광주민보』, 1946.5.16.)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김연수창극단'이 대구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광고(『영남일보』 1946.5.19.)도 있다. 공연 날짜가 겹치니 둘 다 성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3) 『영남일보』, 1947.3.1.(광고)

14) 『민주중보』, 1947.3.20.(광고)

www.kci.go.kr

월에는 아성창극단(亞星唱劇團)이 대구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광고가, 공연 작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역 신문에 계속 나왔다.[15]

2.1. 조선고전음악연구회와 〈건설하는 사람들〉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해방 직후 광주에서 조선음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음악연구회는 1945년 10월 무렵 창극 〈건설하는 사람들〉로 남부 각 지방에서 공연하고 그 수입금을 전재동포 구제 사업에 기부했다.[16] 제2회 공연으로 준비 중인 〈논개〉의 스탭은 '高薰 원작, 안영일 연출, 박동실 작곡, 안기옥 관현악 지휘, 조상선 무용 지휘, 김일영 장치, 심의실 고증' 이라고 했는데,[17] 〈논개〉를 서울에서 공연하려던 계획이[18]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2월 즈음에는 창극 〈건설하는 사람들〉을 대구 만경관에서 공연했다.[19]

〈건설하는 사람들〉은 해방기에 공연된, 최초의 창작 창극이다. 해방 직후 재건 활동에 나선 사람들의 고충과 용기를 다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서울에서의 공연 여부는 알 수 없다,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1946년 1월 서울 국제극장에서 진행된 국악원

15) 『영남일보』, 1946.12.11.-20.(광고); 『대구시보』, 1946.12.13.-17.(광고)
오정숙이 아성창극단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같은 단체를 일컫는지 분명치 않다. 오정숙은 14세 때(1948년) 광주의 박동실이 이끄는 아성창극단이 전주에 와서 입단했고, 이듬해 김연수창극단으로 옮겼다고 회고한 바 있다. 아성창극단에는 성창순, 박옥진 등이 활약했는데, 특히 비극의 여왕으로 불린 박옥진 씨가 부러워 아성창극단에 입단했다고 한다. 「가락 따라 소리 따라(4)-동초제 오정숙」, 『경향신문』, 1994.1.28.

16) 「전재동포구제 전남지부 활동」, 『매일신보』, 1945.10.1.

17) 「다시 찾는 우리 고전음악-문화인 망라로 연구회 탄생」, 『중앙신문』, 1945.12.8. 이 기사에 따르면, 박중실, 안기옥, 조상선, 한승호, 유창준, 임소향, 공기남, 윤병길 등이 고전음악연구회를 창립했다.

18) 「문화인의 지도육성으로 고전음악연구회 탄생」, 『신조선보』, 1945.12.10.

19) 『영남일보』, 1945.12.18.(광고)

www.kci.go.kr

창립 기념 〈춘향전〉 공연에 ‘찬조 출연’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광주에서 조직된 단체가 국악원의 창립 공연에 출연하는 유일한 단체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다.[20]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춘향전〉 공연이 끝난 직후인 1946년 1월 하순부터 3개월 간, 농민사맹과 노동조합 후원 하에 〈건설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방공연을 했다.[21] 이후의 활동 상황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6월에는 ‘납량창극대공연’을 광주부 후생과방역단 주최, 호남신문사업부 후원 하에 호남신문사 옆 대광장(도청 앞) 가설극장에서 공연했는데,[22] 이때 박동실의 〈조선산수가〉(이은상 시, 박동실 곡)와 〈산거기(山居記)〉(남궁훈 작, 박동실 작곡)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8월에는 광주 지역에서 여자 회원을 모아 강습을 진행하는 한편 창극 〈해방절〉(高薰 작, 박동실 작곡) 공연을 계획했다.[23]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해방기에 생긴 단체답게 당대 현실 문제를 소재로 한 창작 창극(〈건설하는 사람들〉, 〈논개〉, 〈해방절〉) 공연을 추진했는데, 이 창작을 주도한 작가를 특정하기 어렵다. 여러 차례 공연된 것으로 확인되는 〈건설하는 사람들〉은 제작진을 알 수 없고, 공연 여부를 알 수 없는 〈논개〉와 〈해방절〉의 작가는 ‘高薰’이라는 생소한 이름이다. 고훈은 누구일까. 1945년 12월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논개〉(고훈 원작, 안영일 연출)의 제작진과, 1946년 10월 예술극장이 공연

20) 이 공연이 처음 광고될 때는 ‘재광주성악연구회’가 찬조 출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공연에서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찬조 출연했다.(『공업신문』, 1946.1.11.(광고)) 김종철의 추정처럼, 1945년 10월 이전에 광주부에서 창립한 조선음악연구회가 12월 무렵 조선고전음악연구회로 개편되었고, 이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재광주성악연구회’로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박동실의 정치적 노선과 〈열사가〉의 거리」, 『판소리연구』 49, 판소리학회, 2020, 336-341면.

21) 「혁명자 구원코저 고전악연구회 지방행」, 『중앙신문』, 1946.1.21.

22) 김소희, 박농선, 김록주, 공기남, 김득수, 박후성, 성원목, 박동실, 장춘흥, 김봉수, 주광득, 성부근, 강봉학, 이남, 송한, 주일남, 김순애, 윤송파. 『광주민보』, 1946.6.16.(광고) 그 외 「창극계 최고봉」, 『광주민보』, 1946.6.20.

23) 「朝鮮古典音硏 하기 강습생 모집」, 『동광신문』, 1946.8.9.

한 〈의기 논개〉(조영출 작, 안영일 연출)의 제작진이 같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고훈은 조영출의 다른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 해방 직후, 조영출과 안영일은 좌익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24]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대표 음악가로는 박동실과 안기옥을 들 수 있다. 박동실은 일제 말기에 (창)극단 화랑의 결성 멤버로[25] 참가했고 화랑의 창립 기념작인 〈팔담춘몽〉(1940.12)의 작곡을 맡아 활동했지만,[26] 이후로는 별로 눈에 띄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 직후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중심인물로 등장해, 부회장/창극부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논개〉와 〈해방절〉 작곡을 맡았고, 단가(〈조선산수가〉와 〈산거기〉)를 발표했다. 안기옥은 조선성악연구회와 조선창극단 공연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기악 연주자이기에 공연 광고에서는 활동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현악부장으로서, 〈논개〉 공연에서는 '관현악 지휘' 역할로 이름을 올렸다. 조상선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화랑에서는 작곡/작창가로 그리고 동일창극단에서는 연출가로 활동했었던 그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기획한 창극 〈논개〉에서는 '무용 지휘' 역할로 이름을 올렸고,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상경했던 때 이뤄진 라디오 방송에서는 연출가로 표시되기도 했다.[27]

---

24) 해방 직후 안영일은 조선예술극장의 대표 연출가로, 조선예술극장의 제1회(1945.12) 〈폭풍의 거리〉와 〈고향〉을, 제4회(1946.5) 〈임진왜란〉을 연출했다. 조영출은 서울예술극장의 대표 작가로, 〈남부전선〉(조영출 번역, 이서향 연출, 1945.12.)과 〈독립군〉(조영출 작, 나웅 연출, 1946.2)에 참가했다.
각자 활동하던 그들이, 1946년 10월에는 예술극장이라는 단체 이름을 내걸고 〈의기 논개〉(조영출 작, 안영일 연출)를 서울 국제극장과 제일극장에서 공연했다.(「예술극장 창립공연」, 『공업신문』, 1946.9.24.; 『서울신문』, 1946.10.9.(광고); 「논개를 보고」, 『자유신문』, 1946.10.11.; 『독립신보』, 1946.10.24.(광고). 그리고 〈의기 논개〉는 1947년 1월에는 대구 만경관에서 6월에는 서울 동양극장에서도 공연되었다. 『대구시보』, 1947.1.4.(광고); 『한성일보』, 1947.6.5.(광고)

25) 「창극단 화랑 제일극장에서 창립공연」, 『매일신보』, 1940.12.20.

26) 「팔담춘몽」, 『매일신보』, 1940.12.24.

27) "창극 조선고전음악연구회. 연출 조상선 건국가" 「라듸오 방송 안내」, 『중앙신문』, 1946.1.21.

‘조선고전음악’ 이라는 명칭 주도권은 안기옥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28] 1946년 6월 무렵 월북한 안기옥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준비가 한창이던 1947년 7월 평양에 조선고전악연구소를 차렸고, 이 연구소를 발판으로 북한에서 창극 공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평양에 조선고전악연구소가 차려진 것과 맞물려 남한에서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가 단체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29]

2.2. 국극사와 〈청산도 절로 사람도 절로〉

1946년 4월 국극사가 창립 기념작으로 〈춘향전〉을 중앙극장에서 공연했고, 국극사가 활동하면서 창극은 국극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30]

국극사의 이 창립 기념작 〈춘향전〉은, 3개월 전에 있었던 국악원 창립 기념작 〈춘향전〉처럼, 김무하 각색 대본을 썼다.[31] 김무하는 누구일까. 김건일 것이다. 일제 말기에는 ‘조선흥행등취체규칙’ (조선총독부령 제197호, 1944년 5월 공포)에 따라, 조선어로 된 것은 일본어 번역문도 첨부해야 했고, 검열에 합격한 각본만 상연할 수 있었다.[32] 검열에 합격한 대본이

---

28) 조선고전음악연구회에 참여했던 박동실, 조상선, 임소향, 정남희, 공기남과, 연극계에서 두루 활동했던 조영출, 안영일도 나중에 월북했다. 배인교, 「1950-60년대 북한 전통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판소리 연구』 28, 판소리학회, 2009, 143-146면.

29) 보성에서 최일환 정응민 외 10여명이 고전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흥행을 했다니(「고전악연구회 보성군내 흥행」, 『동광신문』, 1947.5.18.) 고전음악연구회라는 명칭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30) 국악원 직속 창극단인 국극사가 1945년 11월 5일 조직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예술연감』, 예술신문사, 1947, 132면,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19), 연극과인간, 2006, 203면), 창립 공연이 이뤄지면서 국극사가 공식화되었을 것이다.

31) 국악원 창립 공연(1946.1.11.) 원안과 고증-국악원 문화국, 각색-김무하. 연출-안종화·이서향. 아악지도-장인식, 창악지도-이동백·박동실, 무용지도-이주환·조상선, 조선고전음악연구회 찬조출연. 『공업신문』, 1946.1.11.(광고)
국극사 창립 공연(1946.4.1.) 고증-함화진, 각색-김무하, 연출-임서방, 장치-원우전, 무용-이병성 이주환, 창악부-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강장원 임□성(박종성) 서홍구 박초월 임소향 임유앵 □□주(김봉주?) 김□영 김소희, 음악부-정원섭 안기옥 신쾌동 김재선 조영후 박상경 이병□ 이정업 김천흥 한갑득. 『서울신문』, 1946.3.31.(광고)

제한적이었던 듯 해방 직전까지 〈춘향전〉은 '김건 작'을 가지고 공연했다.[33] 해방 직후에도 이 '김건 작' 대본을 쓰되, 김건 이름을 잠시 감추고 '김무하 각색'이라고 했을 것이다.

국극사의 2회, 3회 공연에는 서항석이 연출가로 참여했다. 서항석은 국극사의 〈신판 심청전〉(1946.9)[34]에 이어 〈청산도 절로 사람도 절로〉(이하에서는 〈청산도 절로〉, 1946.10)의 연출을 맡았다. 일제 말기인 1943-1944년 반도가극단의 설화소재 가극들(〈심청〉, 〈자매화〉, 〈어밀레종〉, 〈콩쥐팥쥐〉, 〈견우직녀〉)의 대본 집필과 연출을 담당했던 서항석은, 1945년 11월 고려가극단(반도가극단의 개명)을 이끌고 공연하며 재기했다.[35] 그리고 1946년 3월경 미군정 하에서 국립극장 극장장으로 내정되었을[36] 무렵부터는 창극계로 활동을 넓혔고, 국극사 공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청산도 절로〉(서항석 연출)는 '항일 전쟁의 혈전기록영화'인 〈조선의용대〉와[37] 함께 1946년 10월 13일부터 도화극장에서 공연되었다.[38] 국

32) 박영정,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문화정책논총』 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258-262면.

33) 동일창극단은 1945년 3월, 4월, 6월, 지방과 중앙에서 〈춘향전〉(김건 작, 박진 연출)을 공연했다. 『매일신보』, 1945.3.29.(광고); 『매일신보』, 1945.4.12.(광고)

34) 〈신판 심청전〉 각색-김무하, 연출-서항석, 조명-차욱. 연기자 진용-정원섭, 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한갑득, 강장원, 한주환, 박종성, 김홍순, 조순애, 오옥석, 손옥경, 조란, 박춘자, 임소향, 김소희, 박록주, 박귀희. 조소옥, 오양금 특별찬조. 동양극장. 『한성일보』, 1946.9.3.

35) 1945.11.4. 가극 〈조국〉(7경, 서항석 작·연출), 음악극 〈추억의 노래〉(문예부·음악부 구성), 안기영 작곡. 약초극장. 『자유신문』, 1945.11.4.(광고); 1945.11.8-11. 가극 견우직녀 전후편대회 제1부(지상편) 〈견우직녀〉(7경), 제2부(천상편) 〈은하수〉(7경), 약초극장. 『자유신문』, 1945.11.8.(광고); 1945.11.22. 가극 〈용궁몽〉(11경, 이선홍 작, 서항석 각색·연출, 형석기 작곡·지휘), 〈고려 언 파래트(7경, 문예부 구성, 형석기 편곡). 중앙극장. 『자유신문』, 1945.11.20.(광고); 1945.11. 가극 〈장화홍련전〉(9경, 서항석 작·연출, 안기영 작곡 김해성 무용), 가극 〈용궁몽〉(11경), 바리에테 〈고려 언 파레트〉(7경), 중앙극장. 『중앙신문』, 1945.11.27.(광고); 1945.12.20. 〈신라의 달〉(7경, 서항석·채정근 작, 서항석 연출, 형석기 곡), 〈피리의 조화〉(□□□ 작, 김정섭 연출, 형석기 곡), 제일극장, 『중앙신문』, 1945.12.20.(광고)

36) 「국립극장 신설」, 『조선일보』, 1946.3.8.

37)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의 '일제군벌에 대한 실지투쟁 상황'을 수록한 기록영화인데, 검

극사의 첫 신작 창극이어서였는지 아래와 같이 공연평도 실렸다.

> "우리 민족문화의 일익을 담당한 창극 예술의 발전 여하는 국악원의 당면과업으로 보아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창극은 창법의 사랑방노름에서 무대에 진출한 이래 그 발전은 지지하였다. 왜냐하면 그 실내악적 요소 즉 창법 연기 음악 구성 등이 무대화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런 모든 점에서 새로운 발전을 기한 것이 저간 발표한 <청산도 절로>에서 엿볼 수 있다. 전체로 보아 그 구성이 과거의 판박인 '춘향전'에서 일보 전진한 것이며 서항석 씨의 연출은 음악과 분위기에 대한 이해로써 성공하였다. 특히 대사의 억양과 연기지도에 고심한 자취가 보이었으나 율동적인 동작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였다. 편곡은 과거 창악의 아리아 중에서 선곡했는데 그 장면에 어울리게 편성되었고 특히 분위기 음악 중에서 단편의 독주는 효과적이었으며 연주한 정남희 씨는 기악의 명수임을 또한 발휘하였다. 여기에는 방자 역으로 유명한 오태석 씨의 독특한 표현과 임소향 씨의 율동적인 묘기는 좋은 대조였으며 조상선 씨의 삼돌 역과 정남희 씨의 임처사는 사계에 중진임에 어기지 않았다. 박녹주 씨의 우수 창법은 여전히 빛났으며 연기와 대사에 공부가 필요하고 특히 박귀희 양의 남역은 그 가진바 '알토'의 음성이 아름다워 자연스러웠으며 당야의 인기를 집중한 감이 있었고 신인 오양금 양은 좋은 연기자이며 소푸라노로써 알토 박귀희 양과 아울러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39]

위 공연평에 내용 소개가 없어, <청산도 절로>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알 수 없었다. 필자는 『경안서항석전집(1) 희곡』(하산출판사, 1987) 맨 마지막에 '제목 미상' 인 채로 실린 희곡이 <청산도 절로>라고 추정한다. 위 공연평에서 언급되는 등장인물 이름(임처사, 삼돌)과 희곡의 등장인물

열을 거친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기록영화 조선의용대 검열 불허가로 상영 불능」, 『자유신문』, 1946.9.1.; 「조선의용대 영화 일반 공개」, 『부산신문』, 1946.9.26.

38) 『서울신문』, 1946.10.13.(광고)

39) 박영근, 「국극사 공연평」, 『경향신문』, 1946.10.20.

이름이 같고, 희곡에 실린 노랫말에서 '청산도 절로'가 후렴처럼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산도 절로〉의 내용은 간단하다. 칠석날 놀이판이 열려 흥겨운데, 동준의 아버지인 홀아비 최서방과 옥순의 어머니인 과부는 앙숙지간이다. 이들의 배우자 즉 최서방의 아내와 과부의 남편이 산사태로 뒤덮여버린 밭뙈기를 놓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고, 그래서 홀아비와 과부가 되었던 것. 이들의 자식인 동준과 옥순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를 못마땅해하는 옥순 엄마는 옥순을 건너 마을 반신불수인 정도령과 정혼해 버린다. 마을의 영도자 임처사가 동준과 옥순이 죽으러 갔다고 속이자, 홀아비와 과부가 화해하고 자식들의 혼인을 허락한다. 삼돌(임처사 집 하인)이가 동준과 옥순을 데려오고, 마을 사람들은 "노랑나비 호랑나비 이리 모여 청산가자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우리들도 절로절로"를 합창한다.

〈청산도 절로〉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경희극풍의 작품으로, 놀이와 합창을 앞뒤에 배치해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부모 세대에 생긴 갈등이 자식 세대의 사랑으로 해결되는 해피엔딩 이야기는, 마을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앞뒤에 배치한 음악 구성으로 표현되었다. 칠석놀이에 참가한 마을사람들의 농악과 합창으로 시작한 극은, 과부와 임처사의 독창, 동준과 옥순의 사랑가, 동준과 옥순의 시름가, 최서방과 과부의 대화창, 매파의 독창, 임처사의 독창으로 이어지고, 마을사람들의 합창으로 마무리된다.

〈청산도 절로〉는 일제 말기 〈일목장군〉과 〈춘향전〉에서 시도된 박귀희의 여창남역 표현술을 되살린 공연이었다. 〈청산도 절로〉에서 박귀희는 '알토의 음성으로' 남자 역을 연기했다. 위 공연평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배역은 임처사-정남희, 삼돌-조상선, 최서방-오태석, 과부-임소향, 동준-박귀희, 옥순-오양금이 각각 맡았을 것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동준과 옥순의 사랑을 박귀희와 오양금이 표현했던 것이다.

www.kci.go.kr

1947년에 국극사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연말 들어서야, 국악원이 기획·추진했던 창극제전을 맡아 주최했을 뿐이다. 국악원이 기획 추진했던 제1회 창극제전은 1947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대구 부산에서, 제2회 창극제전은 1947년 6월에 서울 광주 목포 순천 여수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극사가 주최한 제3회 창극제전부터는 한 지역에서 공연하는 식으로 축소되어[40] 창극제전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었다.[41]

3. 정부수립기 창극 1, '민족오페라'로의 호명

3.1. 국극사와 〈선화공주〉

민족오페라라는 명칭은, 유엔위원단 환영 기념 공연이 한창이던 1948년 2월 국악원의 〈대춘향전〉 공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극사도 창극을 '민족오페라' 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42] 1948년 3월에 공연한 〈대춘향전〉과 〈대장화홍련전〉도,[43] 4월에 발표한 〈선화공주〉와[44] 1949년 1월 발

40) 제3회 창극제전(1947.12.5.-10.)은 〈장화홍련전〉을 (서울)수도극장에서, 제4회 창극제전(1947.12.31.-1948.1.6.)은 〈대흥보전〉과 〈장화홍련전〉을 (대구)제일극장에서, 제5회 창극제전(1948.2.17.-22.)은 〈대심청전〉을 (서울)국도극장에서 각각 공연했다.

41) 한편, 제2회 창극제전과 제3회 창극제전 사이 기간에, '국극사 창극제전'이 부산 일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1947년 11월 26일부터 (부산)조선극장에서. 29일부터 (부산)한벗극장에서, 12월 1일부터 동래극장에서 공연했다. 출연진은 '국악원 출신 조선성악연구회 출신 조선창극단 출신 동일창극단 출신 남자명창 박상근 외 20여명'과 '특별출연 이동환군 줄타기', 그리고 '박녹주, 김소희, 김경자, 조농옥, 조소옥, 김옥연, 김난향, 김초향, 김유앵, 이귀조, 박홍도, 박봉술, 강남월, 김애정, 이일남, 박금향 등'을 명기했다. 『부산신문』, 1947.11.26.(광고)

42) '민족오페라'라는 용어의 출현 과정은, 백현미, 앞의 논문, 194-197면 참고.

43) 김아부 각색 유리촌 연출. 『서울신문』, 1948.2.29.(광고)

44) 국극사가 공연한 〈선화공주〉와 여타 가극이나 악극과의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조선악극단이 1942년에 〈선화공주〉(조명암 작, 김해송 작곡)를 부민관에서 공연했다고 하는데(김의경·유인경, 『박노홍의 대중연예사1』, 연극과인간, 2008, 373면) 신문 광고

표한 〈신라의 달〉도,[45] 그리고 1950년 5월 발표한 〈만리장성〉도 다 민족오페라라고 홍보했다. 〈선화공주〉 〈신라의 달〉 〈만리장성〉이 신작에 해당하는데, 이중 〈선화공주〉와 〈만리장성〉은 여러 차례 재공연되어 국극사의 대표작으로 알려졌다.

〈선화공주〉(秋海棠 작, 유리촌 연출)는 1948년 4월 시공관에서 초연된 이후, 5월에는 동양극장에서, 8월에는 시공관에서 공연되었다. 4월 공연을 알린 한 광고에서는 '신라 향가를 극화한 대서정시, 선화공주님은 남 그즈시 정을 두고 마둥방을 밤에 남모르게 안고나다' 라고 선전문구를 뽑기도 했다.[46] 5월 공연에서는 "목숨을 밧치여 공주를 사랑하는 거러치! 김봉관을 버리고 거러치를 따르는 공주, 그들 사이에 매저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시!"[47]라고 내용을 소개했다. 삼각관계를 설정하고, 선화공주와 거러치(설화에서는 막둥방으로 불린)의 사랑을 강조했던 듯싶다.

8월의 〈선화공주〉 공연은 정부수립 축하공연으로 선전되었다. 이 공연의 제작진에 '조상선 작곡' 이 추가되었으니 음악과 노래 부분이 보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소희의 출연이 특별히 광고되며[48] 막둥방 역을 박귀희가 하고 선화공주 역을 김소희가 맡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49] 박귀희의 여창남역이 유감없이 발휘된 이 공연 직후 박귀희,

---

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45) 〈신라의 달〉은 '선화공주 자매편'이라고 홍보되기도 했다. 『대구시보』, 1949.1.29.(광고) 다른 광고에 따르면 제작진은, '국극사문예부, 연출-유리촌, 작곡-조상선. 출연-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김재선, 신숙, 박귀희, 성추월, 조순애, 박도아 외 20여명.' 『한성일보』, 1949.1.3.(광고).
한편, 국극사가 공연한 〈신라의 달〉은 고려가극단이 공연했던 〈신라의 달〉을 창극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고려가극단의 〈신라의 달〉 관련 정보는 본고의 주 35) 참고.

46) 『부인신문』, 1948.4.29.(광고)

47) 『한성일보』, 1948.5.21.(광고)

48) 『평화일보』, 1948.8.25.(광고) 김소희가 1948년 5월-7월에는 국극협단의 〈고구려의 혼〉에 참여했는데 8월에 국극사의 〈선화공주〉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 출연' 이라고 했을 것이다.

49) "막동방엔 역시 숭글숭글한 박귀희, 공주 선화에는 명창 김소희, 그리고 제2공주에는 아릿다운 도산호주□으로 대호화판이 버러지고 있다." 『부인신보』, 1948.8.25.(광고)

www.kci.go.kr

김소희, 박록주 등 일군의 여류 명창들이 국극사를 떠나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했다.

여성 창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이후, 국극사의 위세는 크게 위축되었고, 국극사의 대표 남성 창자인 오태석을 비롯한 몇몇 단원들이 별도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1948년 10월, 국극사는 〈선화공주〉를 가지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래, 마산 등을 돌며 지역 공연을 이어갔다.[50] 1949년 2월, 국극사가 '신숙, 성추월, 조상선, 정남희'가 출연한 〈선화공주〉를 부산극장에서 공연한 즈음에[51] '민성연예단 오태석일행'이 '오태석, 강장원, 안채봉, 박연심'이 출연한 창극 〈힘〉과 〈놀부와 흥부〉를 부산 공회당에서 공연했다.[52] 국극사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이 민성연예단은 곧 근화창극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국극사를 모태로 여성국악동호회와 근화창극단 등이 새로 생겼지만, 필요에 따라 일종의 연합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1949년 3월 군산에서 공연된 국극사의 〈선화공주〉 공연에는 오태석, 박록주, 박귀희 등이 함께 출연했다.[53] 그리고 1949년 6월부터 1950년 1월 중에는 '국악원 산하 4단체(국극사, 여성국악동호회, (대한)연예사, 근화창극단) 합동 공연이 부산 마산 대구 등지에서 이뤄졌다. 6월 부산극장에서의 〈옥중화〉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 광고를 실어 공연 날짜와 캐스팅을 선전했고,[54] 10월에는 (마산)부림극장에서 〈선화공주〉를 했고,[55] 1950년 1월에는 대구극장에서 진

50) 『부산신문』, 1948.10.10.(광고); 『남조선민보』, 1948.10.22.(광고); 『남조선민보』, 1948.10.26.(광고). 마산 공연 출연진에 박귀희도 있다. 광고에 임의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참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51) 『부산신문』, 1949.2.13.(광고) 이후 부산의 북성극장과 항구극장에서도 연이어 공연되었다. 『민주중보』, 1949.2.16.: 『민주중보』, 1949.2.20.

52) 『민주중보』, 1949.2.24.(광고)

53) 『군산신문』, 1949.3.5.

54) 이도령: 박귀희, 춘향: 신숙, 방자: 오태석 조상□, 춘향모: 임소향 외 50명. 『민주중보』, 1949.6.29.(광고)

55) 『남조선민보』, 1949.10.9.(광고)

www.kci.go.kr

행된 전국향토민요대전[56] 행사에 참가했다.

국극사는 〈만리장성〉을 창립3주년 기념작으로 광고했다. 〈만리장성〉은 1950년 5월 초에 부산극장에서 공연된 이후 5월 중순에는 국립극장 개관 기념 공연작(연극 〈원술랑〉, 창극 〈만리장성〉, 오페라 〈춘향전〉) 중의 하나로 서울 부민관에서 공연되었다.[57] 서울 공연 이후, 5월에는 대구 문화극장에서,[58] 6월에는 광주극장에서 공연했다.[59]

〈만리장성〉이 창극으로서는 신작이었지만, 〈만리장성〉 이름의 공연은 이미 여럿 있었다. 만리장성 건설 때를 배경으로 한 맹강녀와 만명의 슬픈 사랑을 소재로 한 공연은 일제 말기부터 활발하게 이뤄졌고,[60] 해방기에도 맹강녀 설화 극화 열풍이 이어졌다. 조선악극단은 1945년 12월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등지에서 〈도화만리〉 공연을 이어갔다. 1947년 2월 동초 김연수는 「맹강녀와 만리장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고,[61] 그해 9월 이후에는 중국 명성영편공사(明星影片公司)가 제작한 영화 〈맹강녀〉(일명 桃花萬里, 柳中浩 감독, 周璇 徐風 주연)가 '우방 중국에서 보내온 영화'라는 문구를 달고 서울, 군산, 부산, 대구 등에서 상영되기도 했다.[62] 부역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리는 열녀 이야기가, 해방 후 오히려 갈 수 없게 되어버린 저 북지와 만주에 대한 관심과 엮여 퍼져나갔다.

---

56) 『남선경제신문』, 1950.1.14.(광고)

57) 부산 공연 제작진(박춘명 작·연출, 조상선 작곡·지휘, 정남희 음악. 『자유민보』, 1950.4.30.(광고))과 서울 공연 제작진(김일민 작, 박춘명 연출, 조상선 음악·무용. 『한성일보』, 1950.5.12.(광고))이 달랐다.

58) 『남선경제신문』, 1950.5.21.(광고)

59) 국극사는 광주극장에서, 1950년 6월 5일부터 3일간 〈선화공주〉를, 6월 8일부터는 〈만리장성〉을 공연했다. 『동광신문』, 1950.6.1.(광고): 『동광신문』, 1950.6.6.(광고)

60) 1944년 2월 반도가극단의 〈만리장성〉(18경), 1945년 1월 극단 고협의 〈만리장성〉(4막, 이서향 작·연출), 1945년 3월과 5월 조선악극단의 〈도화만리〉(조명암 작·연출) 공연. 백현미, 「신체제기 가극단의 이동과 조선·지나의 재현」, 『대중서사연구』 30(1), 2024, 167-173면.

61) 동초, 「맹강녀와 만리장성」, 『예술통신』, 1947.2.24.

62) 『부산신문』, 1947.12.3.(광고)

www.kci.go.kr

3.2. 국극협단과 〈고구려의 혼〉

1948년 5월 〈고구려의 혼〉(김아부 작, 김무하 연출, 박동실 작곡)이 국악원이 주최한 '국극협단 창립기념공연'으로 시공관에서 공연되었다. "특별출연으로 전남 광주의 박동실 씨를 위시한 동호 30여 명의 명창이 가담"[63]했다. 5월 서울 시공관 공연 광고에서는 '국악원 주최'라고 했는데, 6월 대구 공연 광고에서는 '국악원 직속 국극협단'[64]이라고 홍보했다. 1948년 2월에 국악원이 〈대심청전〉을 공연하면서 '국극협회 창립기념'이라고 홍보한 바 있는데, 이때의 국극협회가 국극협단을 의미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65] '국악원, 국극협회, 국극협단'의 관계 설정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악원 전속극단 국극협단'으로 정리되었던 것 같다.

국극협단은 '국극사'에 이어 '국극'을 단체명에서 강조했다. 김종철은 구성원과 기반 지역(광주)의 유사성을 주목하며, 국극협단이 조선고전음악연구회 소속원들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라고 추정했다.[66] 1948년 5월이라는 결성 시기를 고려해 덧붙이자면, 국극협단은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현악부장 안기옥이 월북하고 평양에 조선고전악연구소를 차린 이후에 광주 지역 창극인들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하겠다.

〈고구려의 혼〉은 일제 말기 동일창극단이 박귀희의 여창남역을 내세우

63) "신라사화에서 취재한 선화공주를 공연하여 일반의 호평을 받고 있는 국악원에서는 금 5월 23일을 기하야서 시공관에서 사극 고구려의 혼 4막5장을 공연하다는데 이번에는 특별출연으로 전남 광주의 박동실씨를 위시한 동호 30여명의 명창이 가담하여 예전보다 더한층 호화로우리라는데 주야 2회에 나누어 막을 열리라 한다."「창극 고구려의 혼, 시공관서 공연」,『부인신문』, 1948.5.23.

64)『영남일보』, 1948.6.17.(광고)

65) 국극협회 및 국극협단 관련한 박황의 기록이 지닌 문제점은 여러 논자가 지적했다. 김민수, 앞의 논문, 165-167면. 김종철, 앞의 논문, 2020, 363-364면.

66) 김종철, 앞의 논문, 362면.

며 공연한 〈일목장군〉(김아부 작, 김건 연출)을 개명한 것이다. 1948년 5월 서울 시공관에서의 공연 이후, 6월에는 서울 영보극장과 대구극장에서,[67] 7월에는 군산극장에서[68] 연이어 공연되었다. 이 공연에서 박후성과 김소희가 주역을 맡았으니, 〈일목장군〉에서처럼 여성창자가 남자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구려의 혼〉은 영화로 제작되었다. 1948년 10월에 영화 개봉 예정 광고가 나왔는데, 이 광고에서 〈고구려의 혼〉은 "고구려의 말엽 보성왕 때 당나라가 침입하자 고불소(高弗素)라는 청년은 민병을 일으켜 검산(劍山) 전지에서 악전고투한 사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반년간의 촬영 기간과 재료난 외 갖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드디어 완성"[69]했다고 했으니, 5월 무렵 국극협단이 창립 공연 준비를 할 때 영화 촬영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제작진으로는 기획-이경춘, 진행-정희진, 음악-국악원, 노래-김소희, 작곡-박동실, 촬영-박희영, 감독-임운학, 제작-조성기을, 출연진으로는 '국극협단 총출연'을 내세웠다.[70] 개봉할 때 나온 영화 포스터에는 '편극-이운방'이 추가되고, '주연-박후성, 김경애, 박금숙, 공기남'을 강조했다.[71] 영화 〈고구려의 혼〉 개봉은 1949년 2월 부산 부민관에서 이뤄졌고,[72] 이어 3월에는 부산 삼일극장과 부산의 항구극장에서[73] 4월과 6월에는 광주의 중앙극장과 동방극장[74]에서 상영했다.

67) 『한성일보』, 1948.6.10.(광고); 『영남일보』, 1948.6.17.(광고)
68) 『군산신문』, 1948.7.29.(광고)
69) 「영화 고구려의 혼, 우주영화사서 제작」, 『자유신문』, 1948.10.20.
70) 『국제신문』, 1948.10.17.(광고)
71) 『부산신문』, 1949.2.1.(광고)
〈고구려의 혼〉의 영화 제작 소식을 알리고 있는 『영화시대』 1948년 9월호(82면, 106면, 121면)에는 남녀 주인공을 맡은 박귀희와 박초월의 사진을 실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공연 사진으로 보인다.
72) 『부산신문』, 1949.2.1.(광고). 한국영화진흥조합 편, 『한국영화총서』(경성흥산, 1972, 281면)에는 '〈고구려의 혼〉, 임운학 태양영화사, 16mm 발성, 1949.4.'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73) 『민주중보』, 1949.2.8.(광고). 『부산신문』, 1949.3.8.(광고)
74) 영화 〈고구려의 혼〉과 실연 〈노래하는 춘향전〉(3경. 춘향:신숙, 도령:정남희, 방자:조상

www.kci.go.kr

영화 〈고구려의 혼〉이 상영 중이던 1949년 2월과 3월, 부산과 광주에서는 단국창극단과 동성창극단이 잠시 활동했다. 1949년 1-2월, 대구 지역에서 국극협단과 단국창극단이 합동 공연을 했다.[75] 2월에는 단국창극단이 단독으로 부산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때의 출연진이 국극협단의 중심인물인 박후성과 박영진, 김완길, 방태진, 박초향, 원옥화, 박홍도, 김영자, 엄송란 등이다.[76] 3월에는 동성창극단이 광주극장에서 〈장화홍련전〉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을 매일 교대로 공연한다고 광고했는데, 이때의 출연진도 박영진, 박후성, 김완길, 방태진, 박초향, 박홍도, 김영자. 엄송란 등이다.[77] 이외에는 단국창극단과 동성창극단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단국창극단과 동성창극단이 일시 만들어져 활동하다가 다시 국극협단과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

1950년 들어 국극협단은 '복수'를 앞세운 이야기로 광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공연했다. '삼백년 전의 복수사, 애인을 구하려 나타난 순찰사 박순이 '이야기를 다룬 〈탄야곡〉은 광주에서 초연되었다.[78] 이어진 대구와 부산에서의 공연에서는 〈복수삼척검〉과 〈원한의 복수〉가 함께 공연되었다.[79] 〈원한의 복수〉는 '눈물로 살고 눈물로 간, 설픈 인생행로의 애

선, 향단:조복란) (광주)중앙극장. 『연합신문』, 1949.4.30.(광고); (광주)동방극장, 『동광신문』, 1949.6.8.(광고)

75) 단국창극단 국극협단 합동 신춘 공연, 창극부(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전막), 국악부(가야금 산조, 키-타 산조), 창극조부, 무용부(화랑무, 신라무, 민속무), 특별 찬조출연 줄타기 왕 김영철군, 9-15 대구극장, 16-18 포항극장. 『대구시보』, 1949.1.8.(광고)
단국창극단 국극협단 합동 대공연. 개관기념대공연,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국립극장(구 보래관), 오태석, 박상근, 김영철, 박초향, 박후성 출연 강조. 『부산신문』, 1949.2.1.(광고)

76) 『부산신문』, 1949.2.13.(광고)

77) 『호남신문』, 1949.3.9.(광고)

78) 5월 광주 공연 광고에는 〈탄야곡〉이 '송림 작'이라고 되어 있다. 『동광신문』, 1950.5.16.(광고)
6월 부산 공연 광고에는 〈탄야곡〉 제작진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박림 작, 박동실 곡·창도, 박영진 도연. 출연-박후성, 김준옥, 한일섭, 박봉술, 주광득, 성창열, 선동월, □선근, 이춘문, 서정길, 조동선, 공기남, 박초향, 박홍도, 성옥란, 선농월, 박해신월, 조금향, 김소월, 박진숙. 『자유민보』, 1950.6.23.(광고)

화. 정의와 진리는 영원한 승리’를 다룬다고 선전했는데, 작가는 알 수 없다.[80] 〈복수삼척검〉은 일제강점기에 동극좌와 청춘좌가 공연했던 것이다.

3.3. 조선창극단과 〈의기 논개〉 그리고 김연수창극단

1948년 들어 조선창극단과 김연수창극단이 창작 창극을 발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제 말기 조선창극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박진과[81] 김연수가 작가와 연출, 작곡 분야에 다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창극단은 일제 말기 공연했던 〈장화홍련전〉(박진 각색)을 이중연쇄극으로 만들어, 1948년 1월부터 4월초까지 부산의 여러 극장들을(조선극장, 한벗극장, 부산진극장, 삼일극장, 북성극장) 순회하며 공연했다.[82]

조선창극단의 〈의기 논개〉는 1948년 4월에는 (부산)조선극장에서, 7월에는 (서울)시공관에서 공연되었다. 4월 공연 광고에는[83] 별 정보가 없는데, 7월 공연 광고에는 ‘작-彈琴台人, 연출-秋山人, 작곡-조상선, 기획-朝唱기획부’이라고 밝혀져 있다. 그리고 조선창극단 단원 15명 이름과 국극사에서 온 ‘협찬 출연자’ 16명의 이름을 병기했다.[84] 국악원 산하단체

79) 『남선경제신문』, 1950.6.13.(광고); 『자유민보』, 1950.6.23.(광고)
80) 『자유민보』, 1950.6.23.(광고)
81) 박진은 일제 말기 조선연극협회 이사와 조선극작가동호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화랑과 창극좌, 조선창극단에서 연출을 전담했다. 〈고란사의 종소리〉 〈豊軍〉 〈歌ふ堺さん〉 등을 창작·연출했고, 징병제 선전극인 〈김유신전〉을 연출했었다. 〈장화홍련전〉(박진 각색·연출)은 조선창극단의 중요 레퍼토리로, 1943년부터 1945년 5월까지 자주 공연했다.
82) 이중연쇄극 〈장화홍련전〉 각색-박진, 감독-홍개명, 촬영-손남진, 장치-홍종인, 진용-백점봉, 정남희, 오태석, 강용원, 박후성, 신숙, 양용식, 원옥화, 박초향, 임소향, 장월중선, 박여직 외 20여명. (부산)조선극장 『부산신문』, 1948.1.7.(광고)
다른 극장에서의 공연 광고는, 『부산신문』, 1948.1.17./1.20./3.20./4.11. 등 참고.
83) 〈의기 논개〉. 13일부터. 특별출연 국악원 정남희 오태석 신숙. 각색 연출 □□□. (부산)조선극장. 『부산신문』, 1948.4.13.(광고)

조선창극단’ 이라고 하기도 했으니[85] 이즈음에는 국악원 산하단체 중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다. 작가와 연출가로 소개된 탄금태인(彈琴台人)과 추산인(秋山人)은 누구일까. 앞 장에서 살핀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논개〉 제작진과 대응시키면 탄금태인은 조영출이고 추산인은 안영일일 것이다. ‘의기 논개’를 기리는 여러 행사가[86] 진행 중이었던 흐름에 조응하지만, 좌익계 문화 예술인으로 알려진 조영출과 안영일의 이름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48년 5월에는 〈왕자호동과 낙랑공주〉(박진 작・연출)를[87] (서울)단성사에서 공연했다. ‘해방 후 첫 공연’이라고 광고했는데 왕자호동와 낙랑공주를 소재로 한 공연들은 일제 말기부터 있었고[88] 해방기에도 〈자명고〉(유치진 작, 1947)가 공연되었다.[89] 1948년 2월에는 대동창극단이 〈왕자호동〉을 공연했다니,[90] 창극으로서도 처음은 아니었다. 조선창극단은 1949년 1월부터 2월까지 〈왕자호동과 낙랑공주〉를 가지고, 부산의 여러 극장들(부산극장, 항구극장, 한벗극장, 삼일극장)을 순회하며 공연했

84) 조선창극단 단원-백점봉, 홍갑수, 조한중, 문한용, 최한영, 이동선, 이진영, 조기섭, 성복근, 장월중선, 박여진, 이영숙, 김옥희, 박소진, 성정순. 국극사 협찬 출연-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김재선, 성순종, 장영찬, 김윤덕, 조순애, 박도아, 조복란, 오순봉, 차인숙, 고화숙, 한계월, 김정숙, 조장순, 『동아일보』, 1948.6.29.(광고)

85) 「조선창극단 〈의기 논개〉 공연」, 『부인신보』, 1948.7.1.

86) 논개의 출생지 장수군청에서는 ‘의기 논개 비각’을 재건하는 기금을 모집했고(『자유신문』 1946.4.26.) 진주에서는 논개의 향사(享祀)를 지냈다.(『한성일보』, 1946.8.4.) 논개는 ‘고금여성의 귀감’으로 추어지게 되었다. 「고금여성의 귀감, 의기논개」, 『부인신문』, 1950.3.2.

87)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정원섭, 백점봉, 강남중, 홍갑수, 양상식, 조한중, 이동선, 이진영, 문한용, 최한영, 조□섭, 장월중선, 박초향, 박여진, 박홍도, 김란주, 이영숙, 김옥희, 박소진, 원옥화, 김옥련. 단성사, 『민중일보』, 1948.5.10.(광고)

88) 신향악극단은 〈낙랑공주〉(이동규 작, 김욱 연출, 1941)를, 극단 아랑은 〈왕자호동〉(이태준 원작, 박영호 각색, 1943)을 공연했다.

89)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이야기를 고구려 왕자와 한사군 중의 하나인 낙랑군 공주의 이야기로 만들어, 낙랑군이라는 외세의 몰락을 보여주는 서사로 만들었다. 유인혁, 「호동왕자 서사의 근대적 재현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26, 대중서사학회, 2011.

90) 〈왕자호동〉 〈춘향전〉 〈흥보전〉, 대동창극단, (군산) 희소관, 『군산신문』, 1948.2.7.(광고)

다.

김연수창극단은 1948년 2월 하순, 〈추련송〉(박영진 작·연출, 김연수 작곡)을 부산 도립극장에서 발표했다. '사계의 거성' 박진이 참여했고, 김연수 자신이 '작곡'을 담당한, "가련한 여인의 눈물겨운 투쟁사를 여실히 묘사"한 '충열록'이라고 강조했다.[91] 이후 1948년 내내 이 〈추련송〉을 위시한 기존 레퍼토리를 가지고 부산 곳곳의 극장(조선극장, 항구극장, 삼일극장, 동래극장, 북성극장, 부민관)에서 공연을 이어갔다.

1949년에는 김연수창극단이 한일창극단 이름으로 활동했다. 1-2월에는 한일창극단(김연수창극단 개편)이 〈단종과 사육신〉(김아부 작·연출, 김연수 작곡)을[92] 부산의 조선극장 북성극장 한벗극장을 돌며 공연했고, 마산의 시민극장, 대구의 대구극장, 광주의 부민관에서 공연을 이어갔다.[93] '사육신'을 기리는 여러 문화행사가 전개되던 즈음에[94] 이뤄진 기획공연이었다. 1949년 5-6월에는 〈임진왜란과 계월향〉을 군산과 광주에서 공연했는데[95] 이 공연은 작가도 연출가도 알 수 없다. 반도가극단이 〈계월향〉(형석기 작곡, 김희정 작, 서항석 연출, 1946.6.)을 공연한 바 있으니,[96] 참고하기도 했을 것이다.

---

91) 조선성악연구원 직속 김연수창극단 신작발표대공연. 충열록 〈추련송〉. 진용-김연수, 성원목, 김준섭, 공기준, 김일선, 전안균, 김현식, 손월성, 임일춘, 한일섭, 방태진, 박진□, 정옥춘, 박옥진, 정명옥, 오정숙, 성창순, 김영자, 김초선, 박채선, 김수만, 박기풍, 박동수, 성부근, 오명수, 박봉태. 『부산신문』, 1948.2.24.(광고)

92) 〈단종과 사육신〉에는 김연수, 성완목, 김완길, 한일섭, 손일성, 성부근, 오회수, 이강호, 최성옥, 임만봉, 이춘문, 박병기, 김옥련, 김금련, 김향련, 박옥진, 이농주, 성창순, 박연심, 허난엽 외 20여 명이 출연했다. 『남조선민보』, 1949.1.28.(광고)

93) 『부산신문』 1949.1.4.(광고); 『남조선민보』 1949.1.28.(광고); 『대구시보』 , 1949.2.25.(광고); 『호남신문』, 1949.3.15.(광고)

94) 사육신보존회가 주최하고 극단 신청년이 공연한 〈사육신〉(김영수 작, 박진 연출)이 1948년 11월부터 서울 시공관과 동도극장 등에서 공연되었다. 「사육신묘보존회 사육신 공연」, 『수산경제신문』, 1948.11.16. 그 외 『자유신문』, 1948.12.2.(광고); 『대구시보』, 1949.2.16.(광고)

95) 『군산신문』, 1949.5.31.(광고); 『호남신문』, 1949.6.21.(광고)

96) 『중앙신문』, 1946.6.1.(광고); 『중앙신문』, 1946.6.17.(광고)

www.kci.go.kr

4. 정부수립기 창극 2, 여성국극(단)의 발흥

4.1. 여성국악동호회와 〈햇님과 달님〉

1948년 10월, 박록주와 박귀희, 김소희를 비롯한 여성창자들이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하고, 〈옥중화〉(1948.10.24-30)를 시공관에서 공연했다. 여성국악동호회의 결성과 여성국극 공연은 다소 급작스러워 보였지만, 단체 구성원들의 활동 반경과 이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동호회 회원들 대부분은 일제 말기 창극단에 소속되어 창작 창극을 공연해왔고, 동일창극단의 〈일목장군〉(1944.6)에서 박귀희의 여창 남역 표현이 크게 주목을 끌었다. 해방기에는 국극사의 첫 신작 창극인 〈청산도 절로〉(1946.4)에서부터 박귀희가 남자 역을 연기했다. 박귀희와 김소희는 국극사의 〈선화공주〉(1948.8)에서 함께 남녀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 이들을 포함한 일군의 여류 명창들이 국극사를 나와 여성국악동호회를 결성한 것이다.

〈옥중화〉(김무하 각색, 김아부 연출)는 '여성만이 출연하는 대호화판' 민족오페라라고 선전되었다. 포스터에서는 출연진 38명의 이름을 성씨별로 모아 배치했다.[97] 광고에 따라 박록주, 박귀희, 김소희, 조유색, 조농월, 이기화, 임유앵, 조농옥, 안채봉은 이름의 크기를 키워 눈에 띄도록 하기도 했다.[98] 박록주와 김소희가 각각 작곡과 안무를 맡아 이름을 올렸고, 국악원 기악부가 음악을 담당했다.[99] 김소희가 춘향 역을, 임춘앵이 이도령 역을, 조유색이 사또 역을 맡았다.[100]

97) 『동아일보』, 1948.10.26.(광고); 『국민신문』, 1948.10.27.(광고)
98) 『국제신문』, 1948.10.24.(광고)
99) 『동아일보』, 1948.10.26.(광고)
100) 박록주, 「나의 이력서 26」, 『한국일보』, 1974.2.12.

www.kci.go.kr

여성국악동호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초한 것은, '유엔한국위원단 환영위원회접대부'의 후원을 받으며 시공관에서 공연한 〈햇님과 달님〉(1949.2.11-17)이다. 작·연출-김아부, 진행감수-김주전, 무대장치-원우전, 의상도안-김정항, 작곡편곡-조상선, 음악편곡-박성옥, 무대장치-원우전이 맡았다. 배역도 광고했다. 여왕: 조유색, 햇님: 박귀희, 달님: 김소희, 준왕: 박록주, 달이내: 김연수, 진달내: 박소석, 부루내: 김경희, 오사마: 조농월 외 40명이 출연했다.[101]

〈햇님과 달님〉 줄거리가 신문 광고에 소개되기도 했다. 1949년 11월에 여성국극동지사가 자신들이 공연하는 〈햇님과 달님 후편〉이 〈햇님과 달님〉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햇님과 달님'을 '전편'이라 칭하며 내용을 짧게 소개했다. 〈햇님과 달님〉의 '전편' 줄거리는 이렇다. 달님공주의 신랑이 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하는 여왕에게, 젊은 대신 고마불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이 신랑이 되게 만들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해 숨어 다니던 햇님왕자가 수수께끼를 풀고 달님과 햇님이 서로 좋아하게 된다. 고마불은 창해국에서 햇님왕자를 사랑했던 전달래를 이용해 훼방을 놓았지만, 공주와 왕자는 굳은 사랑과 정으로 드디어 초례를 치르게 되고 고마불은 여왕의 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102]

이렇게 〈햇님과 달님〉은 수수께끼를 낸 공주와 수수께끼를 푼 왕자가 사랑을 느끼고 주변의 훼방을 극복하는 과정을 다뤄,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연상시킨다.[103] 여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점, 고마불과 진달래를 '악인'으로 설정해 선악 구도를 강조한 점 등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 인물과 소재, 갈등 구도 등은 유사하다. 1948년 국악원 공연에서 쓰이기 시작한 '민족오페라'라는 용어는 국극사와 국극협단에 의해서도

101) 「유엔위원단환영 햇님과 달님 공연」, 『동아일보』, 1949.2.3.
102) 「전편 얘기」, 『서울신문』, 1949.11.13.(광고)
103) 문경연은 〈투란도트〉와 〈햇님과 달님〉의 관련성을 논의하면서, 1949년 2월 무렵 〈투란도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 수용되고 있었음을 밝혔다. 문경연, 앞의 논문, 55-56면.

사용되어 왔는데, 오페라라는 서양 음악극 명칭 사용이 딱히 정합성 있게 전달되기 어려웠다. 여성국악동호회는 서양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공연함으로써, 여성국극이 민족 '오페라' 임을 드러낼 수 있었다.

〈햇님과 달님〉은 '유엔한국위원단환영위원회접대부'의 후원을 받은 공연답게 유엔한국위원단이 관람했다. 유엔한국위원단 환영은 국가적 과제였다. 1948년 12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한 유엔총회에서 유엔위원단 설립을 논의했고, 1949년 초 유엔한국위원단이 입국했던 것. 공연을 본 유엔수석비서 베르트 하이머는, '여자들만으로서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이라고[104] 소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햇님과 달님〉은 유엔한국위원단 환영 축하 공연으로 진행되면서 서양인의 '감탄'을 얻어낸, 외국이 인정하는 민족예술이 되었다.[105] 그리고 이 즈음 여성국악동호회의 조직도 정비되었다. 처음에는 공동대표 체제였던 듯, 〈햇님과 달님〉 공연 준비를 알리는 기사에서는 '대표-박록주, 조유색, 김연수, 박귀희, 김소희'라고 했다.[106] 그런데 공연 성공을 알리는 기사에서는 임원을 회장-박록주, 부회장-김연수, 총무부장-조유색, 연구부장-김소희, 재무부장-박귀희라고 밝혔다.[107]

〈햇님과 달님〉 공연은, 1949년 2월 서울에서의 초연 이후, 행진하듯 이어졌다. 3월에는 부산의 공회당에서,[108] 4월에는 '제3여단 작전과 보도부' 주최하에 대구의 키네마에서,[109] 5월 초에는 부산극장에서,[110] 5월

104) 「유엔단 환영의 창극회 성황 종막」, 『동아일보』, 1949.2.20.

105) 〈햇님과 달님〉이 오리엔탈리즘 텍스트를 각색한 채 서구인의 시선을 강하게 욕망했다는 논의는, 이화진의 앞의 논문, 176-178면 참고.

106) 「여성국악회 공연」, 『조선일보』, 1949.2.8.

107) 「햇님과 달님 수익금 오만원을 재민구호로 기탁」, 『동아일보』, 1949.2.25. 이 기사에 따르면, 〈햇님과 달님〉 서울 공연에서 얻은 순이익금 30만원 중 국악원에 5만원, 동호회 기금으로 15만원을 기부하고, 전재민구휼금으로 5만원을 동아일보사에 기탁하고, 동호회원은 나머지 10만원으로 분배했다.

108) 『민주중보』, 1949.3.16.(광고)

109) 『영남일보』, 1949.4.14.(광고); 연일대만원! 도민의 절대적 요청에 의하야 4월 24일까지 연기공연! 햇님과 달님 주최-여성국악동호회, 제3여단사령부 작전교육처. 『영남일보』, 1949.4.22.

중순에는 서울의 중앙극장에서,[111] 8월에는 국악원 주최, 연합신문사・태양신문사 후원하에 서울의 부민관에서[112] 공연을 했다. 신문에서 확인하지 못한 공연까지 합치면 더 많았을 터였다.[113] 11월에 나온 여성국악동호회 광고에 따르면, '서울 시내 3대 극장(시공관, 중앙극장, 전 부민관)에서 17일간 공연했고, 대구에서 10일간, 부산 공회당 부근에서 햇님달님 한 프로를 가지고 연 16일간 장기공연을 하여 유례없는 관객 동원과 센세이션'[114]을 일으켰다.[115]

1949년 11월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여성국극동지사가 창단되어 〈햇님과 달님 후편, 제2화 황금돼지〉(김아부 작・연출)를 공연해 큰 인기를 끌었고, 여성국악동호회도 곧이어 〈햇님과 달님 후편〉(1949.11.18-24)을 부민관에서 공연했다. 작・연출-본회 문예부, 작곡・창도-조상선, 장치 원우전, 감독-김주전으로 밝혔고, 특별출연 석금성을 명기했다.[116] 〈햇님과 달님〉의 '작・연출'을 맡았던 김아부가 여성국극동지사로 옮겨간 후였지만, 김주전과 조상선이 여전히 주요 역할을 맡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연일 만원사례를 할 만큼 인기를 끌어 원래 일정

110) 『민주중보』, 1949.5.1.(광고)
111) 『조선중앙일보』, 1949.5.18.(광고)
112) 『동아일보』, 1949.8.5.(광고)
113) 여성국악동호회는 국악원 산하 단체로서 여타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1949년 6월 국악원 산하 4단체(국극사, 여성국악동호회, 근화창극단, 연예사)들이 참여한 전국향토민요대전에서 〈옥중화〉가 공연되었는데, 이 〈옥중화〉는 박귀희가 이도령 역을 맡고 다른 남성 역은 남성 창자가 맡는 혼성 창극으로 공연되었다. 『민주중보』, 1949.6.29.(광고)
114) 『서울신문』, 1949.11.17.(광고)
115) 당시 해님 역을 맡았던 박귀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공연 장소는 부산역 앞에 있는 공회당이었다. 그런데 부산 역시 '햇님달님'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이었다. 공연 입장권을 사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두 줄로 늘어서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식사를 하면서 표를 사가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자 경찰은 이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기마대까지 출동시킬 정도였고, 입장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박귀희, 『(인간문화재 박귀희 자서전) 순풍에 돛 달아라 갈 길 바빠 돌아간다』, 서울: 새소리, 1994, 103-104면.
116) 『동아일보』, 1949.11.19.(광고)

보다 하루를 더 추가해, 25일까지 공연했고, 곧 대구 만경관에서 공연을 이어갔다.[117]

여성국악동호회가 공연한 <햇님과 달님 후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배역을 통해 추정해 보자. 아래 ①은 전편의 배역이고, ②는 후편의 배역이다.

> ① (전편) 햇님: 박귀희, 달님: 김소희, 여왕: 조유색, 준왕: 박록주, 박윤옥, 달이네: 조선상, 왈패: 이윤옥, 진달래: 박소군, 고마불: 성추월, 신고지: 고일연, 여관(女官): 이기화, 호위병: 박향월, 망나니: 조농월, 엿장사: 김경희, 관녀(官女): 박정숙, 박춘자, 홍부용, 성정□, 오춘기, 신유경, 음악: 한갑득, 김윤덕, 이정업[118]
>
> ② (후편) 햇님: 박귀희, 김경희, 달님: 김소희, 여왕: 조유색, 김여란, 준왕: 석금성, 달이네: 조선옥, 신유경, 왈패: 이윤옥, 이봉선, 진달래: 박소군, 고마불: 성추월, 신고지: 고일연, 여관: 이기화, 호위병: 장산홍, 망나니: 조농월, 박사: 정금수, 보루내: 김경란, □치: 김효순, 이□선, 兵1: 김경희, 조복란, 兵2: 박계초, 여1: 조소옥, 여2: 박송이, □수: 박향월, 장정: 문영숙, 말한: 박향월, □□□□□: 박혜숙, 고일연, 신유경, 조선옥, 박춘자, 성정애, 박계초, 김경희, 박송이, 김효순, 문영숙, 정금수, 박금자.[119]

전편이건 후편이건, 햇님과 달님, 여왕과 준왕, 진달래와 달이네, 왈패, 고마불, 신고치, 여관, 호위병, 망나니 등이 중요 인물인 점은 같다. 후편에는 박사 역 정도가 추가되었을 뿐이어서, 여성국극동지사의 <황금돼지>에 나오는 '황금돼지' 만큼 새로운 캐릭터와 사건이 전개된 것 같지는 않다. 눈에 띄는 차이는, 햇님과 여왕 역 등 몇몇 역이 더블 캐스팅이 된 점이다. 전편에서 엿장사 역을 맡았던 김경희가 후편에서는 햇님 역을 맡

117) 『영남일보』, 1949.11.29.(광고)
118) 『서울신문』, 1949.11.17.(광고)
119) 『서울신문』, 1949.11.19.(광고)

www.kci.go.kr

게 되는 식으로 급부상했고, 김여란과 석금성이 여왕과 준왕 역을 맡으며 부상했다. 특히 박귀희, 박록주, 박윤옥, 성추월에 이어, 김경희, 석금성, 조농월 등이 중요 남성역을 소화하게 되었다.

1950년 1월에는 대구극장에서 진행된 전국향토민요대전(1950.1.10-17) 행사에 참가했다.[120] 그리고 '햇님과 달님 해결편' '햇님과 달님 제2화' '햇님과 달님 전후편'이라고 광고하며, 2월에는 부산 공회당에서,[121] 3월에는 마산 부림극장에서,[122] 4월 초에는 광주극장에서,[123] 4월 하순에는 서울 시공관에서,[124] 5월에는 강경 강경극장에서[125] 공연했다. 여성국악동호회는, 여성국극동지사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햇님과 달님>에서 얻은 인기를 이어갔다.

4.2. 여성국극동지사와 〈황금돼지〉

'햇님과 달님 후편'에 대한 최초의 광고는 1949년 11월 4일자 신문에 나왔다. 이 광고에는 공연 단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제작진과 출연자, 악사만이 명기되었다. 여성국악동호회가 2월에 올렸던 <햇님과 달님>이 김아부 작・연출, 조상선 작창, 김소희 안무 '를 내세웠던 것과 견주어지려는 듯 ' 햇님과 달님 후편 ' 광고에서는 '김아부 작・연출, 조

120) 이 행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1950년 1월 12일자 신문에 대구극장과 참가 단체(국극사, 여성국악동호회, 연예사, 근화창극단) 대표들 이름으로 낸 성명서가 실렸다.「성명서」,『남선경제신문』, 1950.1.14.

121)『산업신문』, 1950.2.7.(광고)

122) 幽人 작, 조상선 작곡, 김소희 안무, 정남희 음악, 박귀희, 김소희, 박소군, 박녹주, 성추월, 김만희, 조소옥, 조선옥, 이윤옥.「햇님과 달님」,『남조선민보』, 1950.2.28.(광고)

123)『동광신문』, 1950.4.4.(광고).

124) 幽任 작, 조상선 작곡·연출, 박녹주, 김여란, 김소희, 박귀희, 성추월, 김경희, 박소군, 고일연, 석금성, 노신성, 이윤옥, 고춘반, 박향월, 박정숙, 신유경, 김효순, 박송이, 박금자, 박춘자, 성정애, 김정희, 이은희, 김영숙, 정금주, 박계월, 최설향, 박연임, 한갑득, 한주환, 이정업, 신관용.『연합신문』, 1950.4.22.(광고)

125)『국도신문』, 1950.5.23.(광고)

상선 곡·창도, 임유앵 춤지도’를 강조했고, ‘음악-박상근, 지영희, 성영식, 오영해, 김세준’을 명기해 악기 연주(자)를 비중 있게 다뤘다. 그리고, ‘출연자-박초월, 임유앵, 임춘앵, 조농옥, 박연심, 한애순, 원옥화, 안채봉, 김경애, 양옥진, 조금난, 김경희, 조미연, 김인수, 임혜숙, 임□만, 김일심, 김영자, 이은파, 성금연, 박농월, 강옥주, 조농□’도 제시되었다.[126] 이 광고가 여성국악동호회의 것일 리는 없었다. 이 무렵 광고되던 여성국악동호회의 〈햇님과 달님〉 출연자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며칠 후 여성국극동지사가 〈햇님과 달님 후편, 제2화 황금돼지〉(이하 황금돼지)를 11월 9일부터 국도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광고가 실렸다.[127] 그리고 곧 ‘햇님과 달님’ 줄거리를 전편 줄거리로,[128] ‘햇님과 달님 후편 황금돼지’ 줄거리를 후편 줄거리로 구별해 소개하고, 배역을 자세하게 명기한 광고도 실렸다.

> (후편 줄거리) 달님공주의 수수께끼를 풀어 사위가 된 햇님왕자가 첫날밤을 치르지도 못한 채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이때 고마불이 진달래를 꾀어 달님의 방에 남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꾸민다. 오해한 햇님왕자는 실망하고 여왕도 달님을 벌하려고 하는데, 홀연 황금돼지가 나타나 달님을 데려간다. 고마불은 돼지의 심부름꾼이 되어 달님을 괴롭히고 햇님을 방해한다. 돼지의 공격을 당한 햇님을 살리려 달님이 자기 살을 떼어내자 진달래가 감복하고 돕는다. 햇님과 돼지가 싸울 때 달이내와 진달래와 달님도 함께 돕고, 돼지를 물리친다.[129]
>
> 때 단기 1천2백4십년 10월
> 곳 한(韓)의 월지국 서울

126) 『서울신문』, 1949.11.4.(광고)
127) 『서울신문』, 1949.11.6.(광고)
128) 앞 장 ‘4.1. 여성국악동호회와 〈햇님과 달님〉’에서 소개했다. 주 102) 참고.
129) 『서울신문』, 1949.11.13.(광고)

www.kci.go.kr

나오는 사람과 맡은 사람들
햇님(조선 준왕의 아들): 임춘앵
달님(월지국의 공주): 박초월
여왕(월지국 임금): 임유앵, 조농선
준왕(햇님의 아버지): 성금연
부루네(햇님의 스승): 조농선
달이네(달님의 시녀, 왈패의 딸); 김경애
왈패(달이네 어머니, 부르네 □□): 박연심
진달래(창해국 공주, 달님의 시녀): 원옥화
신고지(월지국의 늙은 재상): 조미연
고마불(월지국의 젊은 재상, 달님을 짝사랑): 조농옥
옥직이: 양옥진
박사: 김영자, 임혜숙
대신: 김일심, 임혜숙
황금돼지: 조금앵
촌영감: 박연심
촌젊은이: 임혜숙, 임혜란, 김선희
촌처녀(나비): 김인수, 조금앵, 조미연, 이은파, 성금연[130]

〈황금돼지〉 출연진을 고려할 때, 여성국극동지사는 임춘앵, 조농옥, 임유앵, 박초월이 앞세워지고, 성금연, 조금앵 등이 남성 연기자로 새롭게 등장한 단체이었다. 임춘앵, 조농옥, 임유앵은 여성국악동호회의 〈옥중화〉(1948.10)와 〈햇님과 달님〉(1949.2)에 출연했었다. 여성국악동호회원으로 있던 이 세 사람이 여성국악동호회를 나오면서, 박초월, 조금앵, 김경애, 성금연 등 여성 창극인들이 합류했을 것이다. 박초월은 조농옥, 박귀희 등과 함께 동일창극단에서 활동했었으니 앞자리에 이름을 올릴 만했다. 조금앵은 조농옥의 동생으로 동일창극단에서 활동 이력을 쌓았다. 임

130) 『서울신문』, 1949.11.13.(광고)

www.kci.go.kr

유앵과 임춘앵은 자매이고, 김경애는 임춘앵의 제자로 알려져 있다. 성금연은 여성국극동지사에 입단하면서 무대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남성 연기자로 키워졌다.

〈황금돼지〉는 햇님이 황금돼지의 횡포로 위기에 빠진 달님과 월지국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로, 혼사장애담과 국혼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사례이다.[131] 필자는 햇님이 '조선 준왕의 아들'로 설정되고 장소가 '한(韓)의 월지국'으로 설정된 것에 주목한다. 이를 단초 삼아 특정 역사적 시기(혹은 사건)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즉 '조선의 준왕'이라는 인물은, 위만에게 고조선을 빼앗기고 남하하여 한(韓)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고조선의 준왕(準王)'을, '한(韓)의 월지국'은 마한 지역 대표 세력이었던 '월지국'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132] 고대사와 관련된 이런 역사적 편린들을 고려하면, 〈황금돼지〉는 조선 준왕의 아들 햇님이 한(韓)의 월지국을 구하고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며 (고)조선의 부흥을 도모하는 이야기, 공연이 진행되던 당시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와 목표를 상기시키는 이야기가 된다.

서울에서의 공연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황금돼지〉의 지방 공연은 지역 군대 조직이 후원했다. 11월과 12월에 이어진 (부산)공회당과 (부산)시민극장에서의 공연은 '육군부산지역보급창 주최, 부산헌병대 후원'으로 이뤄졌다.[133] 곧이어 대구극장에서 공연할 때는[134] 진해해군사령부가 공

131) 김성희는, 여성국극의 국난 극복 서사와 국가 세우기 프로젝트와의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김성희, 「여성국극의 장르적 성격과 이미지로서의 역사」, 『한국연극학』 40, 한국연극학회, 2010, 69면. 문경연은, 〈황금돼지〉에서 '사랑의 성취'가 곧 '국가 획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문경연, 앞의 논문, 67면.

132) 3세기 후반 편찬된 중국의 역사책 『삼국지』 동이전 한(韓)조에서, 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패망하자 한(韓)에 망명하여 한왕이 되었다고 기술되었고, 이 기록의 해석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전개되었다. 박대재, 「준왕남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35, 한국고대학회, 2011, 111-133면.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옛 역사에, 월지와 한이 등장하기도 한다. 월지(月氏, 月支)국은 한(漢)의 장건이 개척한 서역의 국가를 일컫는다. 춘추전국시대에 한(韓)이라는 제후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 세력들의 부흥 시기를 고려할 때, '한(韓)의 월지국'이 될 수는 없다.

연을 요청하기도 했다.[135]

1950년 2월에는 연합신문사와 경향신문사가 후원하는 '대한노동총연맹 제4주년, 국제자유노동총연맹 기념공연'으로 광고되는 가운데 〈황금돼지〉(2.12-14)와 〈대춘향전〉(2.15-19)이 시공관에서 공연되었다. '국악원 최고 예술가'들이 동원되어서인지, 국극사나 근화창극단 혹은 여성국악동호회나 여성국극동지사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따로 활동하던 남녀 창극인들이 두루 참석했다.[136] 〈대춘향전〉은 '춘향-신숙, 도령-임춘앵, 어사-정남희, 방자-오태석, 사또-조상선, 춘향모-임유앵 외 80여명'이라고 특별히 역할을 밝혔는데, 정남희와 오태석 조상선이 출연했으니, 여성국극이라고 할 수 없는, 혼성창극이었다. 한편 1950년 6월에는 여성국극동지사 단독으로 〈대춘향전〉(6.9-12)과 〈황금돼지〉(6.13-15)를 부산 동아극장에서 공연했다.[137] 그리고 열흘 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5. 동원 문화의 재연과 변주

해방기 창극계에는 '미상'으로 보이는 상황이 산재했다. 일제 잔

133) 『자유민보』, 1949.11.22.(광고); 『남조선민보』, 1949.12.3.(광고)

134) 『영남일보』, 1949.12.20.(광고)

135) "급고 금월 20일부터 당 극장에 상연할 여성국극동지사의 햇님과 달님은 도처마다 열렬한 절찬 아래 진해해군사령부에서 일주년 기념공연을 요청함으로 부득이 당지 공연은 금월 25일부터 무위상연하겠습니다. 대구극장 주최자 백", 『영남일보』, 1949.12.25.(광고)

136) 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강장은, 김재선, 임종성, 박상근, 이정업, 성순경, 방태진, 장영찬, 한갑득, 김윤덕, 박용청, 신평일, 김세준, 지영의, 성영근 외 10여명 ‖ 박록주, 신숙, 김소희, 임춘앵, 임유앵, 박도아, 김경애, 양옥진, 조금앵, 조복란, 변록수, 김인수, 조농옥, 조농선, 조금앵, 박연심, 성금연, 김선희, 김일심 『국도신문』, 1950.2.11.(광고)

137) 『산업신문』, 1950.6.8.(광고) 멤버 임유앵, 이금선, 성금연, 오춘홍, 임춘행, 김선하, 정미옥, 김소월, 박영심, 박춘심, 김인수, 오수연, 한애순, 한영숙, 김일심, 김영자, 김경애, 김옥자, 오정숙, 이복실

재 청산을 둘러싼 갈등과 좌우파 대치 국면이 확장되던 시대의 음화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영출, 서항석 그리고 김건의 관련 상황을 추정했는데.[138]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확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기 창극 공연에는, 악극계에서 활동했던 조영출과 서항석이 적극 참여했다. 이들은 일제 말기 조선연예작가동호회(1941.12)의 감사이거나 회장이었고,[139] 라미라가극단, 반도가극단, 조선악극단의 공연을 위해 수많은 대본을 썼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조선연극건설본부(1945.8.18.) 극작부 집행위원으로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140] 이후의 활동 경향은 달랐다.

조영출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 가입하고, 조선문학가동맹 시부 위원을 지내는 등 좌익계 단체에서 활동했고 줄곧 자신의 이름을 감췄다. 2장에서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의 〈논개〉(1945.12. 高薰 작, 안영일 연출)의 작가 고훈이 조영출일 가능성을, 3장에서는 조선창극단의 〈의기 논개〉(1948. 彈琴台人 작, 秋山人 연출)의 작가 탄금태인이 조영출이고 추산인이 안영일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극사의 〈선화공주〉(1948. 秋海棠 작, 유리촌 연출, 조상선 작곡)의 작가 추해상도, 북한에서 공연된 〈선화공주〉의 제작진을[141] 참조할 때, 조영출일 가능성이 크다.

---

138) 이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은 더 있다. 1948년 국극사 공연에 연출가로 나오는 유리촌도, 1950년 국극협단이 공연한 〈탄야곡〉의 작가로 나오는 송림(혹은 박림)도, 1950년 여성국악동호회 공연에 작가로 나오는 유인(혹은 유임)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139) 1941년 12월 현재 조선연예작가동호회 회원은 14명으로, 임원은 회장-서항석, 간사-조명암·성태삼이 맡았다. 「演藝作家同好會の役員」, 『경성일보』, 1941.12.23.

140)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여섯 건설본부 중 하나인 조선연극건설본부는 중앙위원장-송영, 서기장-안영일, 극작부-서항석 조명암, 연출부-이서향 나웅, 연기부-배용 서일성 윤부길, 무대예술부-김일영, 무대음악무용부-김해송 송희선, 극단경영부-박구 박민천, 심의실-김승구 김태진 박영호 유치진 함세덕이 속해 있다. 「해방 후까지의 각계 總觀」, 『週報 건설』 1, 1945.11.10. 안광희, 『한국현대연극사자료집』(1), 한국문화사, 2006, 58면.

141) 〈선화공주〉 1958년 12월. 국립민족예술극장. 대본-조령출, 작곡-조상선. 엄국천, 「북한의 신재효 연구 현황」, 『판소리 연구』 27, 판소리학회, 2009. 216면.

www.kci.go.kr

서항석은 1945년 11월 반도가극단을 개칭한 고려가극단을 이끌고 재기를 모색, 1946년 3월경 미군정 하에서 국립극장 극장장으로 내정되었을 때는 연극계로[142] 창극계로 활동 영역을 넓혀 1946년 9월에 진행된 국극사의 제2회 공연 연출을 맡았고, 이어 10월에는 국극사 제3회 공연인 〈청산도 절로〉의 작가이자 연출가로 참여했다. 〈청산도 절로〉의 대본은 서항석의 유고집에 '제목 미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실렸다. 1947년 11월에는 국악원이 〈아랑애화〉(서항석 각색·연출)를 국도극장에서 공연했는데, 이 대본도 유고집에 없다. 서항석이 쓴 창극 대본 중 단 하나가, '제목 미상'인 채로 남은 것이다.

한편 해방기 창극 광고에는 '김무하'라는 이름이 작가로 연출가로 자주 나온다. 국악원 창립 공연 〈춘향전〉(19461.1)과 국극사 창립 공연 〈춘향전〉(1946.4)뿐 아니라 여성국악동호회가 창립 공연으로 올린 〈옥중가〉(1948.10)도 '김무하 각색본'을 사용했다. 본문(2.2)에서 논의했듯 일제 말기에 검열을 통과했던 '김건 작' 대본을 사용하면서 이름을 바꿨을 것이다. 김무하가 김건일 가능성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국극협단이 공연한 〈고구려의 혼〉(김아부 작, 김무하 연출, 1948.5)은 동일창극단이 공연했던 〈일목장군〉(김아부 작, 김건 연출, 1944)을 개명한 것이다. '일목장군'을 '고구려의 혼'으로 바꾸며, 작가 이름도 바꾼 것이다. 해방기가 끝나갈 즈음, 김무하라는 이름도 시나브로 사라졌다. 1950년 국극협단이 〈복수삼척검〉을 공연할 때는, 일제강점기에 동극좌와 청춘좌가 공연했을 때처럼,[143] '김건 작'이라고 밝혔다.[144]

보이지 않도록 바뀌었거나 보이지 않도록 남겨진 것들을 들추니, 식민

142) 극단 독립극장(신무대 개칭)에 참여, 1946년 10월 창립 1주년 기념공연 〈풍년가〉(유치진 작)와 11월 〈쌍둥아의 복수〉(김래성 작)의 연출을 맡았다. 1948년 1월 국제오페라사의 〈춘희〉를 연출했고, 3월 3일 예문사를 창립하여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참가했다. 1948년 8월에는 국악원 이사가 되었다.

143) 1936.4.24-29. 동극좌, 시대극 〈복수삼척검〉(1막, 김건 작) / 1941.7.5-10. 청춘좌, 〈슬프다 어머니〉(이운방 작), 〈복수삼척검〉(1막, 김건 작)

144) 『남선경제신문』, 1950.6.13.(광고); 『자유민보』, 1950.6.23.(광고)

지 시기의 상황과 해방기의 좌우파 갈등이 함께 겹쳐져 보인다. 일제 말기 시국행사 관련 창극 공연에 참가한 주요 작가/연출가는, 김아부와 박진, 그리고 김건이었다.[145] 이들 중 김건은 김무하로 개명된 채, 미군정기와 정부수립기로 이어진 해방공간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김아부와 박진은, 미군정기에는 활동하지 않다가, 정부수립기 들어 작가로 연출가로 활동을 재개했다. 박진이 조선창극단의 공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한 반면, 김아부는 국극사와 국극협단 그리고 여성국악동호회와 여성국극동지사 등에 두루 참여했다. 김아부와 박진이 활동하지 않았던 미군정기의 창극계에서는 일제 말기에 악극계를 이끌었던 조영출과 서항석이 활동했다, 좌익계에 속했던 조영출은 줄곧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다 월북했고, 서항석은 남한 연극계의 중추가 되어 활동을 이어갔다. 이 교체와 연결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동원 문화들이 일부 자연스럽게 재연되었고, 해방기의 갈등 국면들은 보이지 않도록 봉합되었다.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과제를 떠안으려는 듯 해방기 창극계에는 '국극'과 '조선고전음악' 또는 '국악'을 내세운 단체들이 등장했고, '창극'이라는 양식적 정체성을 앞세운 단체들과 공존했다. 해방기 창극계의 구도와 변화, 여성국극단의 등장과 레퍼토리의 파장에서 드러나는 '국민과 여성' 재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기에는 조선고전음악연구회와 국극사가 당대성을 강조한 창작 공연을 올렸다. 광주를 중심으로 생겨난 조선고전음악연구회는 〈건설하는 사람들〉을 여러 지방에서 공연했는데, 회원이었던 안기옥이 월북한(1946.6) 후 평양에 조선고전악연구소를 열던 시기와 맞물려 시나브로 사라졌다. 서울에서 창설된 국극사는 젊은이들의 사랑으로 부모 세대의 갈등이 풀리는 이야기를 경희극풍으로 표현한 〈청산도 절로〉(서항석 작·

145) 백현미, 「신체제기 창작 창극과 프로파간다」, 『비평문학』 92, 한국비평문학회, 2024.6. 76-93면.

www.kci.go.kr

연출)를 발표했다.

창극이 '민족오페라'로 호명되었던 정부수립기에는 여러 단체가 활동하며 (역사)설화 소재작을 공연했다. '국악'이나 '국극'을 단체 이름에 앞세운 국극협단, 여성국악동호회, 여성국극동지사 등이 새로 창단되었고, '창극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단체들 즉 조선창극단과 김연수창극단, 근화창극단, 단국창극단, 동성창극단, 대동창극단 등이 활동했다. 이들 단체들이 공연한 (역사)설화 소재작에는, 일제 때 공연된 (역사)설화 소재극의 재공연이 많았다. 조선창극단은 〈장화홍련전〉과 〈왕자호동과 낙랑공주〉를 공연했다. 전쟁터의 상실과 패배를 다룬 망국사 소재극과 중국 재현 극이 재개되기도 했다. 국극협단은 동일창극단이 공연했던 〈일목장군〉(1944)을 '개명'한 〈고구려의 혼〉(1948.5)을, 국극사는 일제 말기에 인기를 끌었던 '맹강녀 설화'를 소재로 삼은 〈만리장성〉(1950.5)을 공연했다. 둘째, 신작인 경우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경우가 많았다. 국극사는 〈선화공주〉(1948)와 〈신라의 달〉(1949)에서 여성 주인공을 매개로 신라를 재현했다. 조선창극단의 〈의기 논개〉(1948), 김연수창극단의 〈추련송〉(1948)과 〈임진왜란과 계월향〉(1949)은 항일 이미지와 결부된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충의'를 강조했다.

정부수립기 창극계의 변화를 대표하는 현상은 여성국극(단)의 출현이다. 일제 말기에 부각된 박귀희의 여창남역 표현술은 해방 공간에서 다시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박귀희의 여창남역은 국극사의 첫 신작 창극인 〈청산도 절로〉(서항석 작・연출, 1946.4)에서부터 실행되었고, 서항석이 관여한 다른 창극에서도 이뤄졌다. 1947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제1회 창극제전(국악원 주최, 경향신문사 문교부예술과 후원)에서 서항석이 연출을 맡은 〈대춘향전〉 〈대흥보전〉이 공연되었는데, 〈대춘향전〉에서는 중요 역을 두 사람(혹은 세 사람)이 맡았다.[146] 이 중 이도령 역을 맡은 박

146) 이도령 역-박귀희 정남희 임방울. 춘향 역-오양금 박초월. 춘향모 역-임소향, 방자 역-오태석 조상선. 소리-이동백 박녹주. 「흥겨운 우리 민족의 운율」, 『경향신문』, 1947.2.8.

귀희의 연기가 ‘러치 군정장관’을 포함한 미군정청 인사의 관람으로[147] 주목을 끌어, ‘민족음악예술과 아울러 우리 문화를 널리 해외에 소개’한[148] ‘민족국극’으로 강조되었다. 박귀희와 김소희가 막동방역과 선화공주 역을 맡아 인기를 끈, 국극사의 창립 3주년 기념작 〈선화공주〉(1948)는 변곡점이 되었다. 이 공연 직후 박귀희와 김소희가 김록주 등과 함께 여성국극단을 결성하고 ‘여성들만 출연하는 연극’을 시작했다.

‘여성’을 독립 변수로 앞세운 단체의 출현은, 여성 창극인의 이름이 게시되는 ‘위치’를 둘러싼 인정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였다. 창극 광고에서 출연자 이름을 배치할 때, 남녀를 구별하되 남성 이름과 여성 이름을 앞뒤 또는 위아래로 정렬하는 관행이 유지되었다.[149] 이런 관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지, 정렬 기준이 따로 없음을 굳이 표시하기도 했다. 1948년 5월 국극사의 〈선화공주〉 광고에서는 ‘출연자 無順’이라고 밝히면서, 윗단에는 남성 출연자를 아랫단에는 여성 출연자 이름을 배치했다.[150] 여성국극단 광고에서도 이름의 게시 위치를 둘러싼 긴장은 이어졌다. 여성국악동호회는 여러 방식으로 광고했다. 〈옥중화〉(1948) 광고에서는 38명의 여성 창자 이름을 성씨별로 모아 정렬했다.[151] 〈햇님과 달님〉

147) 「러-취 장관 춘향전 격찬」, 『예술통신』, 1947.2.17.
148) 「국악원 주최 춘향전 부산 공연」, 『부산신문』, 1947.4.11.
149) 일제 말기 화랑의 〈팔담춘몽〉(『조선신문』, 1940.12.24.) 광고에서는 ‘남자부/여자부’로 구분 표시를 하며 남자 이름을 위에 여자 이름을 아래에 정렬했고, 동일창극단의 〈남강의 풍운〉(『매일신보』, 1943.9.8.) 광고에서는 남자 이름을 앞에 여자 이름을 뒤에 정렬했다.
1948년 광고에서도 앞뒤 정렬이나 위아래 정렬 방식이 고수되었다. 국극사 〈선화공주〉(『평화일보』, 1948.8.25.) 광고에서는 앞뒤 정렬을 했고, 〈고구려의 혼〉(『동아일보』, 1948.5.20.) 광고에서는 위아래 정렬을 했다. 〈선화공주〉(『자유신문』, 1948.4.26.) 광고에서처럼 남녀 이름을 구별하지 않고 출연자 이름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150) 『한성일보』, 1948.5.21.(광고)
151) 박록주, 박귀희, 박초향, 박금향, 박연심, 박춘자, 김소희, 김봉선, 김농주, 김선희, 김준녀, 이음화, 이봉선, 이춘선, 윤성옥, 윤옥, 임유앵, 임춘앵, 조유색, 조선옥, 조농옥, 조농월, 성추월, 성정애, 방금선, 오춘흥, 장미화, 홍부용, 백운선, 심금선 『동아일보』, 1948.10.26.(광고)

을 처음 공연하던 1949년 2월 광고에서는 '출연자 無順'이라고 밝혔고,[152] 5월 광고에서는 '登場人……順不同'[153]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그리고 11월 〈햇님과 달님 후편〉 광고에서는 '출연진용(가나다순)'이라고 했다.[154] 성씨별로 모아 정렬하거나 '무순'이라고 강조했다가, 급기야 '가나다' 순서로 정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이 창극단의 '대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본문(4.1)에서 살폈듯, 여성국악동호회는 공동 대표(박록주, 조유색, 김연수, 박귀희, 김소희) 체제로 시작했다가 곧 '회장-박록주, 부회장-김연수, 총무부장-조유색, 연구부장-김소희, 재무부장-박귀희'로 직책을 나누고 조직을 정비했다.[155] 이름의 위치를 둘러싼 이 긴장감 넘치는 사례들은, 여성국극(단)을 통해 여성 창극인들의(혹은 여성 창극인들끼리의) 사회적 인정 투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여성국극(단)의 발흥은, 창극(단)의 쇠퇴를 벗어나는, 일종의 도약이었다. 당시 창극단들의 활동 반경은 위축되어 있었다. 조선고전음악연구회와 국극협단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한두 번의 서울 공연 이외에는 주로 지방에서 활동했다. 국극사가 일찌감치 서울에서 창단되었다지만 서울에서의 공연은 제한적이었고, 특히 정부수립기에는 줄곧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기존의 창극단들이 지방 공연을 전전

152) "출연자 無順 박록주, 박귀희, 조유색, □계화, 박소군, 성추월, 김연수, 김소희 외"『연합신문』, 1949.2.12. '무순'이라고 병기하는 것은, 여성국극동지사의 〈황금돼지〉 광고에서도 발견된다. "출연자(무순) 박초월, 임유앵, 임춘앵, 조농옥, 박연심, 조애순, 원옥화, 안재봉, 김경애, 장옥진, 조금란, 김선희, 조미연, 김인수, 임혜숙, 임혜란, 김일심, 김영자, 이은파, 성금연, 박농월, 강옥수, 조농선"『자유민보』, 1949.11.22.(광고)

153) "登場人 성정애, 조선옥, 조농월, 김경희, 이기화, 박귀희, 김소희, 박록주, 김정희, 박춘자, 박정숙, 서화선, 이윤옥, 박향월, 홍부용, 고일연, 신유경, 김연수, 조유색, 성추월, 김정희 順不同"『조선중앙일보』, 1949.5.18.(광고)

154) 출연진용(가나다순) 고일연, 김여란, 김소희, 김경희, 김봉선, 김강남월, 김강상월, 김효순, 김성란, 이기화, 이요초, 문영숙, 박록주, 박귀희, 박소군, 박송이, 이윤옥, 박계초, 박춘자, 박향월, 박금자, 박혜□, 성추월, 성□□, 신□경, 장□□, 정□□, □□색, 조소옥, 조선옥, 조농월, 홍부용『동아일보』, 1949.11.19.(광고)

155)「햇님과 달님 수익금 오만원을 재민구호로 기탁」,『동아일보』, 1949.2.25.

하던 1949년 전후 시기에, 여성국극단은 서울에서 대규모로 그리고 자주 공연하면서 창극의 부흥을 선도했다. 여성국악동호회의 <햇님과 달님>은 '서울 시내 3대 극장(시공관, 중앙극장, 전 부민관)' 에서 장기 공연되었고, 여성국극동지사의 <황금돼지>도 국도극장에서 대대적으로 공연되었다.

여성국극단이 공연한 (역사)설화 소재극은 번안각색작과 고대사 소재작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제 말기 (역사)설화 소재극들이 삼국사에서 소재를 택한 반면, <햇님과 달님>은 서양 오페라 텍스트를 <황금돼지>는 삼국사 이전의 고대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해방기 국극사나 조선창극단이 의로운 여성상을 내세운 반면, <햇님과 달님>은 지혜로 사랑을 쟁취하는 남성상을 <황금돼지>는 외세와 싸우는 용사상을 내세웠다. 장엄한 패배나 비장한 몰락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승전의 순간을 극화했다.

구국의 용사상을 여성의 몸으로 재현한 여성국극(단)은 (준)전시의 현장에 동원되기도 했다. 여성국극은 군부대의 후원과 초청을 받았다. 1949년 4월에는 <햇님과 달님>이 제3여단 작전과 보도부 주최로 대구에서, 1949년 11월과 12월에는 <황금돼지>가 부산헌병대 후원하에 부산에서 각각 공연되었다. '여성들만 출연' 하는 공연 방식과 레퍼토리는 전시 대비용 공용제처럼 활용되기도 했다. 대한부인회가, 비행기 헌납기금 조달을 목적으로 내세우며, 여성들만 출현하는 <햇님과 달님> 공연을 추진했다.[156] 이렇게 여성국극은 태평양전쟁과 한국전쟁 사이 시기라는 (준)전시 상황에서 국민/여성 역할을 상상케 하는 민족오페라가 되었다.

156) (영등포) "대한부인회 영등포지부에서는 비행기 헌납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작3일부터 4일간 매일 하오 1시동7시-2회 영보극장에서 햇님과 달님을 공연 중이라 하는데 출연자가 전부 여성들로만 되어 있음으로 부인단체의 주최는 뜻깊은 것이라고 십칠만 구민의 인기를 총집중하고 있다 한다.?「영등포부인회서 햇님과달님 공연」,『연합신문』, 1950.5.4.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경안 서항석전집(1) 희곡』, 하산출판사, 1987.
안광희, 『한국현대연극사자료집』(1), 한국문화사, 2006.
LG상남언론재단 편, 『해방공간 4대신문: 서울신문 1-5』, LG상남언론재단, 2005.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www.nl.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2. 단행본

김기형 외, 『여성국극 6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09.
김의경 · 유인경, 『박노홍의 대중연예사1』, 연극과인간, 2008.
박귀희, 『(인간문화재 박귀희 자서전) 순풍에 돛 달아라 갈 길 바빠 돌아간다』, 새소리, 1994.
한국영화진흥조합 편, 『한국영화총서』, 경성흥산, 1972.
테드 휴즈, 나병철 옮김,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소명출판, 2012.

3. 논문 및 기타

김민수, 「1940년대 판소리와 창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김성희, 「여성국극의 장르적 성격과 이미지로서의 역사」, 『한국연극학』 40, 한국연극학회, 2010.
김종철, 「박동실의 정치적 노선과 <열사가>의 거리」, 『판소리연구』 49, 판소리학회, 2020.
노동은, 「일제하 음악인들의 친일논리와 단체」, 『음악과 민족』 25, 민족음악학회, 2003.
문경연, 「초기 여성국극의 장르정착과 서사적 특성 연구-<황금돼지>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1, 한국연극학회, 2013.
박대재, 「준왕남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선사와 고대』 35, 한국고대학회, 2011.
박영정, 「법으로 본 일제강점기 연극영화 통제정책」, 『문화정책논총』 1(1), 한국

www.kci.go.kr

문화관광연구원, 2004.
배인교, 「1950-60년대 북한 전통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판소리 연구』 28, 판소리학회, 2009.
백현미, 「해방기 국악원의 정치적·문화적 지향성 변화」, 『판소리 연구』 53, 판소리학회, 2022.
_____, 「신체제기 가극단의 이동과 조선·지나의 재현」, 『대중서사연구』 30(1), 대중서사학회, 2024.
_____, 「신체제기 창작 창극과 프로파간다」, 『비평문학』 92, 한국비평문학회, 2024.
엄국천, 「북한의 신재효 연구 현황」, 『판소리 연구』 27, 판소리학회, 2009.
이화진, 「여성국극의 '오리엔탈 로맨스'와 (비)역사적 상상력」, 『한국극예술연구』 43, 한국극예술학회, 2014.

www.kci.go.kr

Abstract

Creative Changgeuk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 Wome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Baek, Hyunmi

The aim of this paper is to trace the activities of changgeuk troupes, interpret trends in creative changgeuk, and clarify how 'the people' and 'women' were represented and mobilized in changgeuk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period, the Joseon Classical Music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ere newly organized and performed creative changgeuk works based on contemporary realities. The Joseon Classical Music Research Association, formed in Gwangju region, performed *Builders*(1945) in various regions, but disappeared when a similarly named group organized in North Korea.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formed in Seoul, performed *Cheongsan Flows Naturally and So Do People*(1946) which dealt with the conflicts of farmers in a light and dramatic style, reused featuring Park Gwihee in a female-portraying-male role that had been popular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During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period, changgeuk was called 'national opera,' historical and legendary works were performed. These work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ose featuring women fighting against Japanese occupation and those reviving popular works from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National Theater Company's *Princess Seonhwa*(1948) featured a female protagonist, while the Joseon Changgeuk Company's *Righteous Woman Nongae*(1948) and the Kim Yeonsu Changgeuk

www.kci.go.kr

Company's *The Imjin War and Gye Wolhyang*(1949) emphasized the attitude of women who performed acts of loyalty on the battlefield. Works based on the fall of the nation or related to China, which were popular during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also performed. The National Theater Cooperative performed *The Spirit of Goguryeo*(1948), a renamed version of *General Ilmok*(1944), while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performed *The Great Wall*(1950), based on the legend of Maenggangnyeo.

In the latter half of the period, women's gukgeuk troupes were founded and presented historical tales that depicted the image of men saving the nation, which can be divided into adapted works and works based on ancient history. The Women's Gugak Association's *The Sun and the Moon*(1949) was an adapted work that depicted the image of a male figure who won love through his wisdom in solving riddles. The Women's Gukgeuk Comradeship's *The Golden Pig*(1949) was based on ancient history and depicted the Joseon prince 'Sun' defeating foreign forces symbolized as the 'golden pig' and saving the 'Wolji Kingdom of Han(韓).' Women's changgeuk received support from the military as a performance that reenacted the image of men saving the country. Women's changgeuk became a national opera that imagines the role of the people and women in the (quasi) wartime situation between the Pacific War and the Korean War.

Key words: *The Builders*, *The Spirit of Goguryeo,*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The National Theater Cooperative, The Kim Yeonsu Changgeuk Company, Seo Hangsuk, *Princess Seonhwa,* Women's Gukgeuk, The Women's Gukgeuk Comradeship, The Women's Gugak Association, *Righteous Woman Nongae, The Imjin War and Gye Wolhyang,* The Joseon Classical Music Research Association, *Cheongsan Flow Naturally and So Do People, The Sun and the Moon, The Golden Pig*

접 수 일: 2025년 7월 10일
심사기간: 2025년 7월 21일~2025년 7월 30일
게재결정: 2025년 8월 11일

www.kci.go.kr